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 news.onnuri.org | 2023년 3월 5일(주일) 제1432호

돌봄: 다음세대를 돌보는 신앙교사

2019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3월 8일 양재, 15일 서빙고 오후 7시 30분, 강부호 목사, 이재훈 담임목사 설교

다음세대를 위한 교사와 부모의 기도가 시작된다.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가 '돌봄: 다음세대를 돌보는 신앙교사'를 주제로 막 오른다. 3월 8일(수)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3월 15일(수)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된다. 차세대 교사와 부모, 다음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돌봄: 다음세대를 돌보는 신앙교사'는 어떻게 목자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지, 다음세대를 잘 돌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축복의 장(場)이다. 파워스테이션(차세대 찬양팀)의 찬양, 설교, 합심기도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3월 8일 강부호 목사(양재온누리교회), 3월 15일 이재훈 담임목사가 설교한다.

노희태 목사(차세대사역본부장)는 "차세대 교사는 목자 되신 예수님을 닮아 다음세대를 양육하고 돌보는 사람"이라며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 '돌봄: 다음세대를 돌보는 신앙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다음세대를 돌보는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는 교사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차세대 교사 부흥집회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차세대 교사와 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 차세대에게 올바르고 선한 영성을 전수하는 방법을 공유하고, 차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도록 중보기도 하고 있다.

문의: 02-3215-3523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이번 주 '물'

'텀블러 사용하기', '일터에서 내 컵 만들기'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실천할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제는 '물'이다. 심각해지는 물 부족과 수질 오염 문제를 되새기고, 수질을 개선하는 다양한 실천을 한다. 주제 말씀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창 1:9)이다.

'교회 실천'은 '1회용 용기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 '일터에서 내 컵 만들기'다.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회사에 머그컵을 비치하면 일상에서 쓰는 일회용품을 의미 있게 줄일 수 있다. '개인 실천'은 '설거지할 때 물 절약하기', '천연 발효액 세제 사용하기', '샤워할 때 물 아끼기, 양치 컵 사용하기' 등이다. 설거지할 때 100L에 육박하는 물이 사용하는데 설거지통에 물을 받아 설거지하면 60% 이상 물 절약을 할 수 있다.

체리앱을 활용해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참여하면 더욱 뜻깊다. 체리앱에서 매일 '교회 실천'과 '개인 실천'을 확인하고 인증샷과 소감을 남기면 '오늘의 미션'을 완료하게 된다. 체리앱은 앱스토어나 구글플레이에서 설치하고, 'MY단체'에 온누리교회를 등록한 다음 '캠페인'란에서 '사순절 창조질서 회복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체리앱

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팀 본대 귀국

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팀 본대가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를 마치고 지난 3월 3일(금) 귀국했다. 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팀 본대는 김광동 장로, 온누리교회 대학청년 10여 명으로 구성됐다.

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팀 본대는 지진 피해가 가장 큰 하타이와 안타키아(구 안디옥) 지역 외곽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했다. 8인용 텐트 1천 개를 설치했고, 식량과 생필품을 전달했다.

김광동 장로(NGO 더멋진세상 대표)는 "튀르키예 국민들이 슬픔을 떨치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긴급구호팀 김형진 형제는 "우리의 작은 섬김이 무너진 땅을 다시 세우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아웃리치 시계를 코로나19 전으로!

2000선교본부, 2023 아웃리치 가이드라인

2000선교본부에서 올해 여름 해외 아웃리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첫째, 대면 아웃리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아웃리치가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이전처럼 아웃리치 현장에 직접 가서 활동하면 좋겠다. 둘째, 반드시 공동체 결연 선교사 및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 사역지로 가야 한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나 공동체 결연 선교사가 없어서 어디로 아웃리치를 가야 할지 모르겠으면 2000선교본부와 상의해야 한다. 2000선교본부에서 아웃리치 지역을 매칭해준다. 셋째, 여행금지구역, 특별여행주의지역, 출국 권고지역 등 위험한 지역은 자제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가야 한다면 반드시 2000선교본부와 논의해야 한다. 넷째,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출국 시 상황에 맞는 방역수칙을 잘 따라 아웃리치를 못 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배행삼 목사(2000선교본부)는 "올해 아웃리치는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멈춰있던 아웃리치의 시계를 다시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2000선교본부와 잘 상의해서 은혜롭고 안전한 아웃리치를 준비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628

기획_ 친환경 교회 5면 어린이신문_ 자녀양육, 도와주세요! 6면 긴급구호_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현장에서 7면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하나님의 소망

로마서 15:8~21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올해 2월 6일에는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연이어 2월에 세계를 뒤흔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 지진을 예언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종말의 징조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는다는 것은 진실에 귀를 막는 어리석음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이 '아메리칸 드림'을 말했던 미국을 보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세계는 여전히 미국을 지구상에서 가장 앞서가는 경제, 군사 대국으로 손꼽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미국에 대한 도덕적 존경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청교도 시대에 불렸던 '언덕 위에 빛나는 도시'라는 명칭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폭발적인 살인 범죄율과 마약 범죄가 횡행하는 몰락하는 사회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제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소비국으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0.78까지 떨어져 이 속도로 가면 수십 년 내 나라가 소멸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두 이러한 상태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수치심이나 분노, 저항도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세상에 파묻혀 살아가며 하나님 없는 사회를 추구할 때 소망 없는 인생이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실상과 종말의 분명한 징조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소망을 두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5장 13절에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소망의 대상이 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고,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망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믿는 자들이 구원의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무엇이든지 이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됐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 인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롬 15:4).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우리가 이 소망을 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대개 '소망'이라는 단어는 확실함보다 불확실성을 말할 때 더 많이 사용합니다. 단지 미래에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단순한 바람 정도가 아닙니다. 확실히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는 믿음입니다.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시즘에서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을 수동적으로 만들어서 현실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고,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라 거짓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더 현실적이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까? 구원의 소망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가 할 일을 하게 합니다. 참된 성도는 구원의 소망 가운데 늘 사랑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각자가 소망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히 6:11).

"그뿐 아니라 또한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조차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됨,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 소망 가운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합니다"(롬 8:23~25).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왜 소망으로 구원받았다고 고백할까요? 믿음이 미래가 될 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미래 시제가 될 때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온전한 변화도 확실한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환란 가운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롬 5:2).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간 은혜는 환란이 와도 그 환란 속에서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결국 그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어 갑니다. 믿음이 고난을 만날 때 소망이 밝게 빛나고, 소망을 열매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부활 영광을 소망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고, 환란을 만나도 그 환란 속에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첫째, 하나님의 소망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네 구절에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소망을 설명합니다. 〈우리말성경〉에 '이방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단어 헬라어 '타에스네(τνη)'는 '민족들', '열방들'로 번역됩니다. 〈개역개정성경〉에서 '열방들'이라고 번역한 것이 이방 사람보다 적합한 것 같습니다. 열방이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열방이 함께 주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백성들로 변화되는 소망입니다. 〈로마서〉 15장 9절은 〈시편〉 18편 49절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로마서〉 15장 10절은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로마서〉 15장 11절은 〈시편〉 127편 1절을 인용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은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이새의 뿌리, 곧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방 사람들이 그 안에 소망을 둘 것이다."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인종적, 문화적 갈등처럼 보입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날을 지키느냐 등의 문제를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시각에서 권면했습니다. 본문에서는 더 깊은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음식 문제와 절기 문제는 에피소드입니다. 겉으로 분열이 나타난 이슈입니다. 그러나 더 깊은 원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에피센터'(Epicentre)라고 합니다.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있으면 겉으로 나타난 이슈는 핑계일 뿐이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 될 때
열방에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고, 더 깊은 문제, 보이지 않는 문제가 깔린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면 그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지만, 실제로는 더 깊이 묵어 있던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그 문제를 발생하게 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에 관심을 가지지 못할 때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절기를 지키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됩니다.

로마교회가 성장하면서 주후 49년경 클라우디오라는 황제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일제히 추방되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추방되었다가 서서히 돌아오면서 유대문화와 전혀 상관없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로마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문화와 관습의 차이가 그들 가운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바울이 "겉으로 나타난 문제일 뿐이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는 하나님의 소망에 관심을 가진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겠느냐? 문제가 될 수 없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을 비전으로 삼지 못하면 싸울 이유가 수천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을 비전으로 삼으면 다투고 분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만이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중요한 일이지만, 필요를 채우는 게 궁극적인 목표가 되면 분열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열방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둘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종말의 징조인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빈번해지고,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때에도 여전히 소망을 버리지 않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유대인으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루신 목적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할례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이는 조상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그 긍휼하심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8~9절).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열방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이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가는 통로

둘째,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기를 빕니다"(13절).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소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소망이 흘러넘쳐서 전해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소망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절망이 흐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소망이 전해지는 통로입니다. 선교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통해서 열방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고, 열방이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제목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소망이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왜 이것을 기도했을까요? 자신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이유는 자신 안에 소망이 흘러넘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소망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켄터키에 있는 애즈베리 신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수 주 동안 매일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가 끝났는데도 돌아가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수만 명이 학교에 몰려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였던 미국 땅에 과거에 있었던 영적 부흥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란 무엇입니까? 예배를 마쳤는데도 계속 예배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설교 시간에만 듣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임재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국에 대한 소망을 계속 가지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부흥이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영혼에게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셔서 소망이 흘러넘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소망이 흘러넘친 역사가 선교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소망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담대하게 쓴 것은 여러분에게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은혜는 나로 이방 사람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15~16절).

두 가지 차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조건 사랑과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은혜입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는 은혜입니다. 또 다른 차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나에게 소망이 흘러넘쳐서 누군가에게 소망이 전해지는 통로가 되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받는 은혜에만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쓰임 받는 은혜, 내가 통로가 되는 은혜, 나를 통해 소망이 흘러가는 은혜를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8~21절까지는 성령님이 자신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고백합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함께 나타났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없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지 않아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소망이 전달되는데 자신을 드리고 쓰임 받는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에게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납니다. 쓰임 받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20절).

하나님의 소망이 자신의 열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복음을 듣고, 보고, 이 소망으로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열망이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소망을 주십니다. 구원의 소망을 주십니다. 열국이 그리스도에게 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소망이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하나 될 때 열방에 하나님의 소망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열방에 전해지고, 모든 이가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는 역사가 마지막 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류현모 교수의 기독교 세계관

과학주의의 이념화와 신무신론

류현모 교수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다윈의 진화론은 1859년 〈종의 기원에 관하여〉라는 책으로 발표되었다. 이 책은 생명의 기원이나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 다윈은 같은 종 안에서 형태변화의 축적을 통해 새로운 종이 탄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을 발표한 것이다. 다윈의 주장을 이념화하는 데 처음 공헌한 사람이 토머스 헉슬리다. 다윈은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하고 논쟁을 싫어해서 그의 책이 처음 발표되고 논란의 중심에 있을 때 헉슬리가 다윈을 대신해서 진화론의 변호자로 활약했다. 그의 손자 줄리안 헉슬리는 영국 생물학회 회장과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역임하면서 진화론의 이념을 세계화하는 일에 대를 이어 충성했다.

영국의 무신론자들을 중심으로 각광받던 진화론은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진화론을 찬양하는 많은 추종자가 생겨났다. 특히 공산 혁명이 일어난 소련에서 기독교 탄압을 위해 하나님 없이 생명의 시작을 설명할 수 있는 진화론을 이론화하고 전파하려는 공산당의 요구가 발생했다. 이에 부응해 알렉산더 오파린은 자신의 화학진화론을 더욱 발전시켜 '원시수프(primordial soup)' 이론을 제안했고, 얼마 후 영국의 핼데인도 비슷한 주장으로 공명했다.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이 대립하는 가운데에도 진화론에 대한 양 진영의 공명이 대단히 상호의존적이며 협조적이었다. 그러나 분자생물학이 발전하고, 세포 내의 수많은 소기관의 기능과 구조가 밝혀지면서 하나의 세포가 저절로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은 힘을 잃어갔다. 그리고 진화론을 지지할 화석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결국 1980년 시카고 진화론자 회의에서 점진적 진화라는 다윈 진화론의 핵심 주장이 폐기되고, 급진적 진화를 주장하는 단속평형이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윈의 명성을 이용한 과학주의 이념의 유지를 위해 다윈의 진화론을 아직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

2001년 911테러 직후 기도와 신적 은혜의 필요성에 대한 욕구가 사회적으로 강력하게 발생했다. 샘 해리스의 〈종교의 종말〉(2004년)은 근본주의 이슬람을 공격하면서 미국과 전 세계 무신론자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그러나 얼마 후 해리스는 〈기독교 국가에 보내는 편지〉(2006년)라는 책을 통해 이슬람 근본주의뿐 아니라 기독교 등 일신론 종교 전체를 근본주의라는 이름으로 싸잡아 비판했다. 리처드 도킨스는 자신이 대본을 쓰고 출연해서 BBC에서 방영된 '모든 악의 근원'이라는 다큐멘터리 내용을 〈만들어진 신〉(2006년)이라는 책으로 출판해 베스트셀러 목록에 51주 동안 오르면서 반기독교적 공격의 선봉에 서게 된다. 그 외 다니엘 데넷 〈주문을 깨다〉(2006년), 크리스토프 히친스의 〈신은 위대하지 않다〉(2007년), 빅터 스텡거 〈물리학 세계에 신의 공간은 없다〉(2007년) 등 기독교에 적대적인 서적들이 이 시기 집중적으로 출판되었다. 영국의 언론인 게리 울프는 21세기 초 이러한 특별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신무신론(New Atheism)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리처드 도킨스, 다니엘 데넷, 샘 해리스, 크리스토퍼 히친스를 신무신론의 4대 기수라고 말한다.

"참 진리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참 진리의 시금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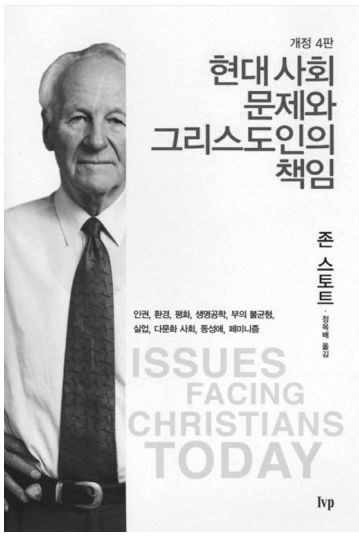
앤터니 플루는 평생을 무신론 진영의 대표적인 논객으로 살다가 80세가 넘어 유신론으로 전향했다. 그는 〈존재하는 신〉이라는 책에서 신무신론자들에 대해 "자신들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논증은 제시하지도 않으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현상들은 듣지도 않고 무시만 한다. 과학적 용어를 사용해 과학적 주장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형이상학적 기원론과 존재론에 대한 것이며, 그들의 철학적 논증은 초등학생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벨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피터 메더워는 '젊은 과학도들에게 드리는 조언'이라는 글에서 "꼭 필요한 일도 아닌데 마치 과학이 모든 가치 있는 질문의 대답을 알고 있는 듯 행하는 것, 설령 모르더라도 곧 알게 될 거라고 단정하는 것, 또 과학적인 대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에 대해서는 얼간이나 숙맥들이 주고받는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이라고 비난하는 것들보다 빠르게 과학을 망신시키는 일은 없다"고 했다. 이 발언 역시 신무신론자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하는 주장을 경계하라는 조언이다.

레슬리 뉴비긴은 "현대 과학은 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의 손에 맡겼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인 기술개발이 현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과 기술이 지혜를 대신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이 지혜는 과학기술의 목적이 진리에 부합하는지 분별하는 힘이 있다"고 주장한다. 어떤 측면에서 일리가 있는 말이라 할지라도 참 진리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참 진리의 시금석이시다.

추천 도서

현대 사회 이슈들에 대한 기독교의 답!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존 스토트 저 | IVP | 25,000원

이보다 주제와 내용을 더 잘 드러낼 순 없다.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 말이다. 이 책은 그 제목처럼 현대 사회의 여러 이슈와 당면한 문제들을 성경적, 신학적으로 성찰하도록 돕는다. 더불어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준다.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복음주의자이자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가운데 한 명인 존 스토트 목사가 현대 사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설명한다. 더 나아가 현대 사회 이슈들에 대해 기독교적 해답을 제시한다.

작금의 시대는 인권, 환경, 평화, 부익부 빈익빈, 실업, 동성애, 페미니즘, 다문화 사회, 노사 문제 등의 사회 문제로 늘 시끄럽고 불안정하다. 존 스토트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헌신한다. 그러한 성경관을 주장하는 것이 이 책의 기본 전제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 번째 헌신의 대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 거하게 하신 세상이다. 성경과 세상에 대한 헌신은 종종 충돌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인다. … 하지만 나는 한 세상에 굴복함으로 다른 세상에서 발을 빼려는 유혹에 애써 저항했다. …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다."

이 책에서는 다원적 세계, 전쟁, 환경, 인권, 노동, 인종 문제, 여자와 남자, 결혼과 동거, 낙태와 안락사, 생명공학과 동성애 등 사회 문제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을 분석하고 건전한 신학적 기반으로 진단한다. 그리고 사회 문제를 자각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제안한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사회적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한다. 존 스토트 목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독교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현대 사회에는 지도자 기근 현상이 심각하다. 우리는 거대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 많은 사람이 세상이 재앙을 향해 가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조언해주는 사람이 거의 없다.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낀다. '목자 없는 양' 같으며, 지도자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 기독교적 리더십(분명한 비전, 성실한 노력, 끈질긴 인내, 겸손한 섬김, 강인한 훈련)의 지도자가 필요하다."

덧붙여 저자는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고한다.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평범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위해 야망을 가지고 모험을 하세요! 그분의 목적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과 당신 존재의 모든 것을 그분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충분히 발휘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치가 공존하고,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사회적, 윤리적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 1. 성도들의 실천기 2. 친환경 기업 3. 생명을 살리는 기관 4. 친환경 교회

묵밥 한 그릇도 친환경…

친환경 목회 실천하는 청주 쌍샘자연교회

'친환경'이라는 글자가 교회 앞에 붙어 있다. 새삼 낯설다. 사실 모든 교회가 친환경 교회를 지향하는 게 옳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창조세계를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친환경 교회'라는 표현이 낯설까? 그만큼 이 시대 교회가 친환경에 관심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나라에도 친환경 목회를 실천하는 교회가 있을까? 그 교회의 사역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 사회선교부 '생명과 환경팀'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아 친환경 목회를 실천하는 청주 쌍샘자연교회를 찾았다. 청주 쌍샘자연교회 백영기 목사와 묵밥 한 그릇을 먹으며 친환경 교회와 목회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청주 쌍샘자연교회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묵밥 한 그릇이었다. 지난 2월 26일(일) 청주 쌍샘자연교회 점심 메뉴가 묵밥이었다. 반찬은 삶은 달걀과 섞박지가 나왔다. 청주 쌍샘자연교회 성도들은 각자 대접에다 묵밥을 먹을 만큼 퍼 담고 식탁 교제를 했다. 백영기 목사가 "청주 쌍샘자연교회의 일품(一品) 요리를 준비했다"며 기자에게도 묵밥 한술 권했다.

"일품요리는 품이 적게 들어서 차리는 사람도 좋고 낭비하는 음식이 없어서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이 밥상 앞에서 고마운 이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먹을 것이 없는 형제와 이웃을 위하여 욕심부리지 않고 남기고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단순하고 검소하게 생명과 자연을 보듬는 흐르는 물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식사 기도입니다. 친환경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메뉴를 단출하게 하는 것으로도 환경을 아끼고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백영기 목사는 지역과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바로 '친환경 교회'라고 정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것이 곧 '친환경 목회'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친환경 교회는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호정리 전하울마을에서 친환경 목회를 하고 있는 백영기 목사(청주 쌍샘자연교회).

지역 사회와 어울리고, 선한 영향력 주는 교회

청주 쌍샘자연교회가 자리 잡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호정리 전하울마을은 60여 가구가 사는 농촌이다. 20여 년 전 청주 쌍샘자연교회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에는 9가구가 살던 더 작은 마을이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하울마을과 청주 쌍샘자연교회가 잘 어우러지면서 상부상조했다.

"쌍샘교회는 청주시 달동네에 있던 교회였는데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전하울마을로 이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지역 주민들이 이곳에 교회가 생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주민이 겨우 9가구밖에 없는 마을에 교회가 오는 게 이상하다', '이상한 사이비종교면 어쩌냐'고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쌍샘자연교회는 지역 사회에 해가 되는 일을 절대 하지 않고, 주민들이 떠나라면 언제든지 떠나겠다고 각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가 지역 사회에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절대 해가 되지 않는다고 설득을 하고 또 설득해서 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청주 쌍샘자연교회가 전하울마을로 이전하면서 우려와 달리 활기가 돌았다. 매주 주일이면 청주 도심에서 20여 가구가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부터다. 그 덕분에 마을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기지 않았다. 또 청주 쌍샘자연교회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카페, 공방 등 편의시설이 있어서 도시인들이 귀촌을 고려할 때 1순위로 생각하는 지역이 됐다.

"주일에만 모이는 전원교회가 아니라 농촌과 함께 사는 자연교회가 되기 위해 부지런히 힘썼습니다. 처음에는 걱정의 눈초리가 많았는데 부단한 노력과 정성을 보였더니 관심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마을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니까 좋아하셨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르신 한 분 두 분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지금은 쌍샘자연교회 성도 1/3이 전하울마을 주민이고, 나머지 2/3가 청주 도심에서 오십니다. 사실 많은 도시 교회가 놓치는 게 이웃들입니다. 주차문제가 발생하면 교회가 지역 사회에 눈 감고 귀 닫고 살아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지역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이웃들을 나 몰라라 하면서 사회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친환경 교회는 지역 사회와 어울리는 교회입니다.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입니다."

변화가 오래 걸리더라도, 교회는 창조질서를 지키고 가르쳐야!

누구나 친환경적인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고, 어느 교회나 친환경 목회를 표방할 수 있다. 그러나 진짜 그렇게 사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쌓아온 습관, 편리하게 누리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다.

"우리 교회만 해도 처음에는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왜 그런 것을 합니까'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성도들도 그간 편하게 써오던 물건을 바꾸고, 습관을 새로 만드는 게 정말 힘들기 때문입니다. 생업과 연결되어서 서로 민망하고 곤란한 상황도 많았습니다. 축산업을 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환경 관련 주제로 세미나를 하면 서로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작은 시골 교회도 이런데 도시 교회는 오죽하겠습니까? 인식의 변화는 정말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고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교회와 성도들이 창조질서를 지키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백영기 목사가 "함께 식사하고, 차 마시고, 책 읽으며 창조질서를 묵상하고 회복시키는 은혜를 공유하자"며 온누리교회 성도들을 초대했다.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호정전하울길 158번지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채민정 성도

"동네 시장에서 장보기!"
/ jihae

"부천시 분리수거에 맞게 분리배출 하고 있습니다."
/ 해피에코

"사용 안 하는 전기는 '스마트 하우스'로 차단!"
/ dyaiankim

"차가 아닌, 걸어서 볼일보러 다녀요."
/ jjlove

"공기정화 식물 키우기 잘 하고 있습니다."
/ 손주현 성도

"사순절 첫날 오르는 계단은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 신후남 성도

"화단에 꽃을 심어요."
/ 이상민 성도

2023 사순절 창조질서 캠페인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제안

- 미사용 공간 소등하기
- 컴퓨터(메일) 데이터 정리하기
- 대중교통 이용하기
- 분리수거 잘 하기
- 텀블러 사용하기
- 일터에서 내 컵 만들기
- 이면지 활용하기
- 종이영수증 대신 온라인 명세서 받기
- 잔반 남기지 않기
- 헌혈하기
-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참여하기

자녀양육, 도와주세요! – "스마트폰 중독 자녀가 걱정돼요"

중독은 예방이 최선!

민성원 박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전문 자문위원, 미국 공인 심리상담전문가 (NCC))

IT 기술 발달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확산하면서 스마트폰이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았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기능이 부과된 최적화된 휴대전화로 알려진 스마트폰은 IT 강국인 우리나라 국민 93.4%가 소유하고 있다. 만 3세 이상 국민 10명 중에서 9명에 해당하는 비율이다. 스마트폰 이용 연령도 낮아지고 있다. 2016년 초등학생 4~6학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77%였고, 2018년에는 81.2%, 2021년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7.7%였다. 초등학교 6학년은 92.6%라고 보고했다.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2021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들의 28.4%, 청소년 37%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속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6년 수치(아동 17.9%, 청소년 30.6%)에 비하면 아동 집단에서 그 폭이 더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의 조사는 코로나19로 아동·청소년들이 스마트폰 사용에 더욱 노출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청소년들의 48.7%가 코로나19로 인해 미디어 사용이 증가했고, 이중 19%는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스마트폰 과의존이란 개인 생활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패턴이 다른 활동보다 두드러지고, 그 이용 빈도가 높아서 자율적 조절능력이 발휘되지 않고, 신체, 심리, 사회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함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상태를 말한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2011년(전체 인구의 8.4%)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추세이다. 주목할 것은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청소년 집단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사용자군을 크게 '일반 사용자군',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고위험 사용자군'으로 나눈다. '일반 사용자군'은 대부분 심리사회적 문제를 보이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한다.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폰과 관련한 문제 행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학교생활에 관심이 떨어지고,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사용 시간 집착 경향이 높아지고, 사용 시간이 느는 경우다. '고위험 사용자군'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내성과 금단현상이 나타나는 경우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할수록 만족을 얻는 시간이 점차 증가하고(내성), 스마트폰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 시간을 줄였을 경우 불안하고 초조하거나 강박적 사고 혹은 환상(금단) 등을 경험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증상은 연령대에 따라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유아일수록 자기가치감, 자기 조절력의 수준이 낮고, 공격성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스마트폰에 중독된 아동은 우울, 공격성 정도가 높고, 학교생활 만족도가 떨어지고 적응에 어려움을 보인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중독 성향이 높을수록 우울, 강박, 대인예민성, 정신증의 정도가 높다.

스마트폰도 중독되면 약물 중독자의 뇌와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 특히 6세 미만 아이들이 스마트폰의 동영상, 게임 등 일방적이고 반복적인 자극에 장시간 노출되면 좌뇌와 우뇌의 균형이 깨져 발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능하면 스마트폰 사용 연령을 늦추라고 권한다.

스마트폰 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부모의 개입과 양육 태도가 중요하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지도가 합리적일수록, 부모의 양육 태도가 자율적이고 수용적일수록, 학업 성취 압력이 낮을수록, 부모와 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중독 경향성이 낮아진다는 연구들이 있다.

스마트폰이 반드시 해를 끼치는 것만은 아니다. 스마트폰의 탁월한 정보들이 낯선 길을 찾아갈 때, 학습이나 개인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문제는 조절능력이다.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이 위험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일정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할 것을 연습하면서 조절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부모의 조절능력도 중요시 되고 있다. 최근 연구자들은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규칙(예: 잘 때는 스마트폰 반납하기, 식사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등)을 정할 때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습관을 되돌아 볼 것을 권하고 있다. 부모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질책을 듣는 것을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최근의 연구 중에는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이 높을수록 자녀의 스마트폰 이용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즉,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하는 부모의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부모의 스마트폰 이용 행동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받는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것이다.

아무리 유용한 도구일지라도 조절해서 사용할 능력을 잃어버리고,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바뀌면(신 5:7, 요일 4:11), 그 도구는 인생을 잡아먹는 중독의 길로 빠지게 만드는 위험한 도구가 될 것이다. 중독은 예방이 최선책이다. 우리 아이를 위한 건강한 개입을 고민하자.

패션 집회 'Follow The Way' 참가자 소감

"빛나는 사명을!"

지난해 12월, 17살에 학교를 그만두면서 제 인생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간은 결국 죽고,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한데 나는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2박 3일 동안 이어지는 집회에서 제 삶의 근원적인 목적에 대한 의문을 해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참가했습니다.

첫 특강, 차길영 대표님의 강의에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1년 동안 세상에서 인정받는 좋은 학교에 다니며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예배의 자리를 멀리했던 지난날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났더니 모든 일이 버겁고 힘겨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이겨내려고 애썼던 시간을 생각하면 제가 학교를 그만두게 된 것이 하나님이 저를 위해 일하신 거라고 느낍니다. 하나님 곁에서 더 멀어지기 전에, 제 마음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을 보여주셨음을 믿습니다.

패션 집회 둘째 날 밤 친구들과 방언의 은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록 저는 방언을 경험해본 적이 없지만, 다른 친구들의 경험과 목격담을 들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양과 기도에 귀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부끄럽고, 교회를 떠난다고 해서 하나님께 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모습이 부끄럽고 연약해서 더욱 기도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회개할 것들을 적으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패션 집회 마지막 날 노희태 목사님이 먼 나라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며 보고 느낀 것들을 진솔하게 고백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아이들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비전이 생겼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허망해 보이던 저에게 하나님이 빛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관계없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평생 삶의 원동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김민지 학생
(부천 파워웨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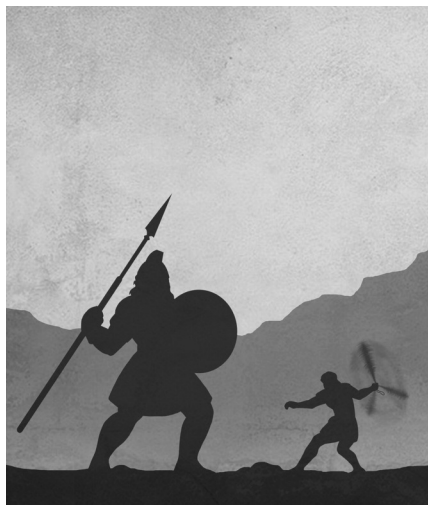
하나님, 안녕하세요!

글.그림 명난희

41.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물맷돌

성경 QUIZ

출제범위: 〈예수님이 좋아요〉
2월 27일 본문 '삼상 17:43~49'



1.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며 무엇을 의지했나요? 다윗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삼상 17:45)
① 칼 ② 창 ③ 하나님 ④ 돌멩이

2. 다윗은 주머니의 돌을 꺼내 무릿매로 던져 골리앗을 이겼어요. 다윗은 골리앗의 몸 중 어디에 돌을 맞혔을까요?(삼상 17:49)
① 무릎 ② 배 ③ 이마 ④ 이빨

*** 정답과 함께 이름, 소속, 연락처를 적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NGO 더멋진세상,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 현장에서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을…"

NGO 더멋진세상 긴급구호팀이 찾은 지역은 튀르키예 하타이주 이스켄데룬 안타키아(안디옥)이다. 이번 대지진 피해가 큰 지역 중 하나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무덤과 다르지 않다.

많은 이재민이 도시를 떠났지만, 여전히 떠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노약자, 장애인, 장거리를 이동할 수 없는 이재민들이 많고, 아직 가족의 시체조차 찾지 못해서 집 주변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시리아에서 난민으로 튀르키예에 온 이재민들도 대다수다.

이재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텐트다. 많은 이재민이 튀르키예 정부에서 설치해준 텐트촌에 머무는 것보다 폐허가 된 집주변에서 지내고 싶어 한다. 이재민들이 지낼 수 있는 텐트 1천여 개를 지원했다.

온누리교회 파송 선교사님들이 정말 큰 수고를 하고 계신다.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교회와 기관에서 튀르키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교두보와 통역을 선교사님들이 모두 감당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고 지금까지 쉴 틈 없이 구호 활동을 지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형제 8명이 이번 긴급구호에 참여했다. 계속되는 여진에 긴장을 풀 수 없는 상황이다. 조그만 진동이라도 느껴지면 현지인들은 창밖으로 뛰어내릴 정도로 예민하다. 구호품을 나눠주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구호품을 던져야 할 정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 지금은 상황이 조금 정리되어서 "게츠미 숄슨(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이라는 인사를 건네며 구호품을 나눠줄 수 있게 되었다.

참혹한 현장이지만 온정이 있다. '마카로니'가 이미 많다면서 다시 가져오는 이재민들도 있다. 고맙다며 긴급구호팀에게 물과 음료수를 건네는 이재민들도 있다. 10톤 트럭 2대 분량이 한나절이면 동이 날 정도로 강행군이지만, 그 누구 하나 힘들다고 말하지 않는다. 잠깐이라도 쉬고 싶을 텐데 이재민 한 명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 빈 트럭에 구호품을 채우고 있다.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튀르키예 국민을 위한 끊임없는 기도와 관심이 필요하다. NGO 더멋진세상은 그 누구보다 가깝게 튀르키예를 섬길 것을 약속한다.

김광동 장로
(NGO 더멋진세상 대표)

"우리는 이들과 함께 울겠다"

한국에서 온 수많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고 튀르키예에 무슨 일이 터졌음을 직감하고 뉴스를 틀었다.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사상자 수에 망연자실하며 그 무엇 하나 할 수 없음이 상심과 절망으로 다가와 나를 사로잡았다.

참사 하루 만에 현지 사역자들과 선임선교사들이 팀을 결성해 현장으로 급파됐다. 나는 이스탄불에서 교민들과 성도들을 섬기다가 지난 2월 17일부터 재난현장에 들어오게 됐다.

자연 앞에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모른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꼈다. 건물들은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들었다. 지진의 상흔이 깊게 새겨진 도시에는 이재민의 애통해하는 소리와 먼지만 날리고 있었다.

재난현장에서 건강하게 태어난 아이, 지진 발생 이틀째 신속한 지원과 구난 사역을 위해 달려온 한국 교회 연합팀과 세계 각지의 구조대와 구호팀들이 희망이다. 구조 차량으로 쓰라며 자신의 차량을 선뜻 내어준 현지 주민들, 한국 구조대의 통역을 돕기 위해 먼 길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튀르키예 학생들, 하타이 지역으로 긴급구호하러 간다는 외국인의 말에 선뜻 자신의 지갑을 열어 물품을 구매해서 보내준 이스탄불 이웃들, 고난 중에도 구호품을 함께 나누는 이재민들, 자신의 사무실과 공장을 선뜻 구호 물품 창고로 내어준 무슬림 형제 알리, 현지의 필요를 듣고 텐트와 난로를 지원하기로 한 온누리교회와 성도님들이 희망이다.

온누리교회가 시작한 프로젝트에 많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동참하고 있다. 이번 지원으로 도시 변두리 지역과 산골 오지 마을 등 AFAD(튀르키예 재난위기 관리청)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텐트 1천 개를 보급 및 설치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울겠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와 후원으로 섬겨주신 한국 교회와 성도님들, 온누리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지금은 무너져 황폐한 이 땅에 훗날 정말 푸르고 순결한 꽃들이 피어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다.

/ 최바울 선교사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처음 긴급구호팀이 꾸려진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그곳에 갈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 내가 긴급구호팀 합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르심의 마음이 내가 목표하고 소중한 기회보다 우선 되는 것이다.

튀르키예로 떠났다. 그곳에서 이 마음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튀르키예에서 나는 통로였다. 세계 각지 성도님들의 긍휼을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통로였을 뿐이다. 내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기에 그들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이 어색했고 민망했다.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텐트를 치고 물건을 나눠주는 내내 머릿속을 맴돌던 생각이었다. 더러 고맙다는 말도 없고, '그저 지나가기를 바란다'는 위로의 말에 대꾸도 없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괜찮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아끼지 않고 나눌 수 있었다. 튀르키예에 오고, 자고, 먹고, 나눠주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었다. 내 것이 아니기에 온전히 그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었고, 섬길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모든 게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다윗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며 비로소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나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연습해야겠다.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님을 연습하고 연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고민 없이 순종하기를 소망한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한다.

/ 안드레 형제(긴급구호팀원)

책임감의 미학(美學)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김수민 권사
(동대문중랑공동체, 칼럼니스트)

초중고 시절 생활기록부를 보면 담임 선생님의 평가란에 자주 올라오는 단어 중 하나가 '책임감'이었다.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학생이 성적이나 교우 관계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책임감이 있다"는 평가를 받으면 모든 약점을 만회할 수 있는 장점으로 부각 되었고, 미래의 길이 열리는 아이콘이었다.

'책임감'의 엄청난 힘

대한민국에서 책임감은 국가나 일터, 가정, 교회에서 충성심으로 발현되었다. 기성세대에서는 아버지가 한 직장에서 평생 충성스럽게 재직하고 정년퇴임을 하는 게 가문의 자랑이었다. 어머니들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교육한 책임감의 여전사들이었다.

자원이 없는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핵심 국가로 부상하게 된 동력은 각 분야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의 책임감 덕분이었다. 하지만 지난 10년 OECD 국가 중에서 부끄러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살률, 이혼률, 노인빈곤률, 아동불행지수의 원인을 살펴보면 책임감의 상실과 무관하지 않다.

연로한 부모에 대한 책임을 자녀가 다하지 않을 때 부모는 절망과 외로움으로 정신과 육신이 무너지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의 무관심과 무책임은 자녀들이 입시경쟁 스트레스와 학교폭력, 교우 관계, 불확실한 진로에 대한 불안감의 수렁에 빠지게 한다. 부부간에도 책임의식이 희미해지면 여러 이유로 이혼하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면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다.

일터에서도 마찬가지다. 대표가 책임감을 상실하면 부실한 경영으로 회사 매출이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복지와 사기가 떨어진다. 곧 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직원들도 책임감을 상실해서 회사 기술을 유출하는 최악의 상황이 도미노처럼 일어난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가 은퇴를 앞두고 있을 때 그 기업에 탁월하고 쟁쟁한 인물이 많아서 과연 누가 후계자가 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었다. 카네기는 놀랍게도 찰스 쉬브(Charles Schwab)를 지목했다. 그는 청소부로 입사해서 회사 생활을 시작한 중졸 출신이었기에 모두가 충격에 휩싸였다. 카네기는 "좋은 대학을 나온 유능한 사람은 많지만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좀처럼 찾기 힘들다"며 그를 후계자로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루아침에 즉흥적으로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

수십 년 전, 공장을 둘러보던 카네기가 한 철공 곁을 지나게 되었다. 대부분 일하다가 고개를 돌려 사장한테 인사를 하는데 이 철공은 사장이 곁에 머물러 있어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진지함과 자신감이 넘쳐흐르고 있었다. 카네기는 속으로 '저런 친구한테 공장을 맡기면 책임감 있게 운영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공장 관리자를 권유했다. 그런데 그는 "사장님, 저는 다른 일은 못 합니다. 평생 해 본 일이라고는 쇳물에서 철관을 뽑는 일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을 계속하도록 해주십시오"라며 거절했다. 승진 기회에 연연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의 성실함과 근면한 태도를 눈여겨본 카네기는 훗날 그를 비서실장으로 임용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청지기 같은 그의 책임감을 보았고 결국 그에게 회사를 맡기기로 했다.

나라와 사회를 지탱하는 힘은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의 희생정신이다. 1597년 임진왜란 발생 이후 6년 동안 해전에서 연전연승하며 나라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에게 돌아온 것은 주변의 시기심으로 인한 누명과 파면이었다. 오랜 전쟁으로 혼란이 극에 달한 조선은 무서운 속도로 한양으로 북상하는 왜군에 의해 국가 존망의 갈림길에 처하자 옥살이하던 이순신 장군을 다시 삼도수군통제사로 재임명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탁상공론으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린 조정 대신들과 무능한 임금을 향해 원망과 불만을 쏟아내며 목숨을 담보로 하는 최악의 전쟁에 임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 그에게 남은 것은 전의를 상실한 병사와 두려움에 가득 찬 백성, 12척의 배뿐이었다.

1,500만 관객동원 영화 '명량'에서도 묘사되었듯이 마지막 희망이었던 거북선마저 불타고 잔혹한 성격과 뛰어난 지략을 지닌 용병 구루지마가 왜군 수장으로 나서자 조선은 더욱 술렁였다.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배가 속속 집결하고, 압도적인 수적 열세에 모두가 패배를 직감했을 때 이순신 장군은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 나중에 전라우도 수군절도사 김억추의 배 1척이 더해졌지만 멀리 떨어져 관망만 했기에 이순신의 책임감이 사실상 12척의 판옥선으로 적의 133척을 수장시킨 기적 같은 승리를 낳았다.

성경 인물들의 책임감

성경에도 책임감 있는 인물들을 수없이 찾아볼 수 있다. 사울 왕이 초심을 떠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자 하나님은 그를 버리고 새로운 왕을 세우기 원하셨다.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셨다(삼상 16장). 사울의 반발을 우려해 사무엘은 제사를 지내러 왔다고 말하며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청한다.

이새의 아들들을 보며 사무엘은 속으로 엘리압을 기름 부으실 자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렸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다. 이새가 아들 일곱을 모두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했지만 여호와께서는 택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은 아직 그 자리에 오지 않은 막내가 양을 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데려오라고 명한다. 그리고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노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아마 평범한 사람 같으면 효율적으로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밥 먹고 합시다.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라고 했을 수도 있다.

사무엘은 불임이었던 어머니(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울며 한 서원기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성전으로 보내 엘리 제사장의 손에서 자라게 한다. 그의 부모라고 어찌 어렵게 얻은 늦둥이의 재롱과 성장 과정을 보고 싶지 않았겠는가. 밤에 열이 나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엘리 제사장이 잘 돌봐줄지, 아이가 떼를 쓰면 때리지는 않을지, 영양결핍 없이 잘 먹이고 있을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이다.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자 약속에 대한 책임감이었을 것이다. 성전에서 자란 사무엘은 자신의 스승 엘리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자녀교육도 엉망인 환경에서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맑은 영의 선지자로 세워진다. 경건 훈련이 몸에 배어 식탐과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책임감의 선지자로 성장했다.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도 이스라엘 전통에 따라 기업 무를 자의 책임을 다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기에 개인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젊은 과부 룻을 아내로 받아들였다. 그는 신중하고 배려 깊은 마음으로 결국 메시아의 가문을 이었다.

430년 종살이하던 자기 민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라는 명령을 받은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두려움으로 거절했지만, 온갖 고생 끝에 그 임무를 수행해낸다. 끊임없이 배신하고 속을 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수천 번 포기하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 할 때마다 홍해를 가르고 인도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켜드리며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매달렸다. 비록 가나안 입성에는 제외되었지만, 그는 충성심으로 책임을 다한 위대한 지도자였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인간들을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죄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새벽부터 감람산에 올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말씀을 선포하시고(Preaching), 환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Healing), 가르치셨다(Teaching). 책임감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부지런하고, 인내심이 강하며, 자신을 희생한다. 현대 성도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있다. 삶을 나누고 시간을 드려야 하는 공동체 활동에 속하지 않고 예배만 참석하는 성도들도 늘고 있다. 예배와 봉사의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싶은 자발적인 책임감에서 비롯된다. 찬양사역팀(성가대)이 없어지거나 노령화되면서 몇 명의 워십팀으로 대체하는 현상은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바쁜 주중에 연습시간을 할애하고, 가족과 동행하고 싶은 주일에도 교회에 일찍 나오고, 예배 후에는 다음 주일 특순을 연습하는 찬양사역팀과 챔버의 헌신은 대단한 것이다. 차세대 교사들, 공동체 리더십들, 주차 안내, 청소 봉사자들, 각 사역팀 책임자들, 교역자들도 존경스럽다. 한 장로님은 본인이 서울에서 경영하던 병원을 여수로 옮겼는데, 순예배에 참석하고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매주 서울로 올라온다고 한다. 지방에서 교사생활을 하는 한 집사님은 주말에는 서울에 올라와 차세대 교사로 섬기고 있다. 그의 입술은 늘 부르터 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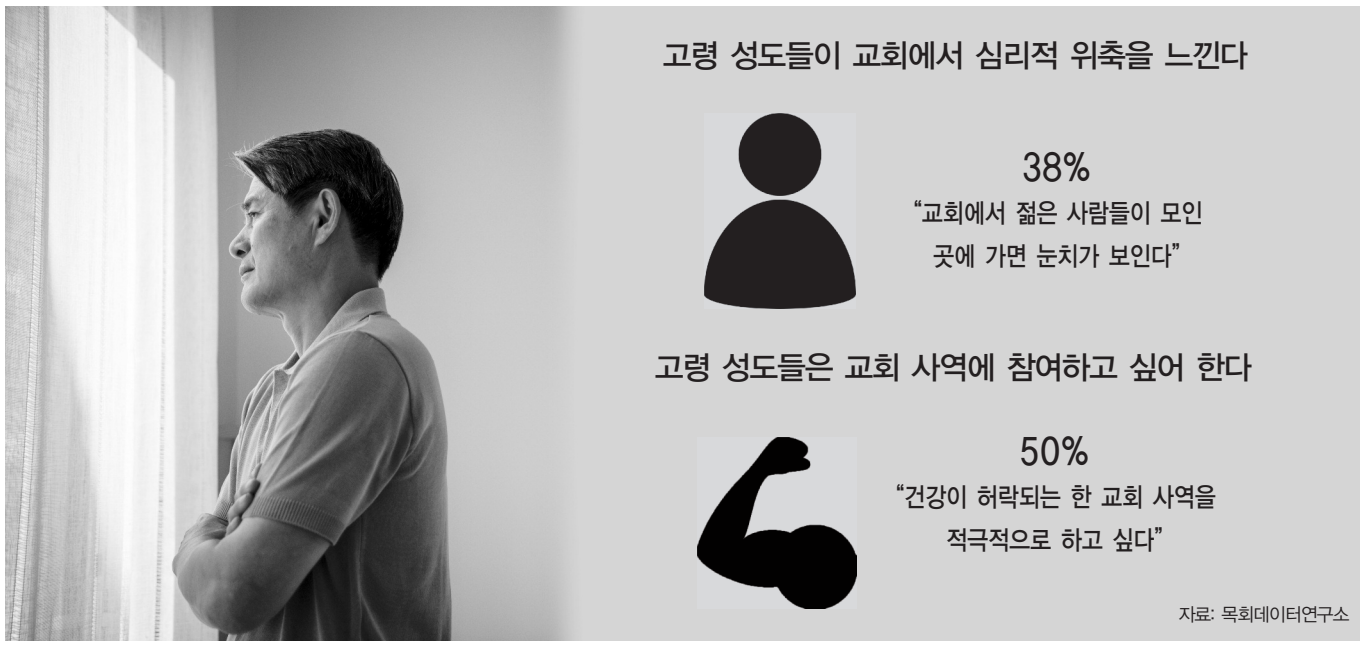
특집 1. 고령사회와 교회 2. 시니어 사역의 필요성 3. 실버세대를 위한 교회

교회가 더 빠르게 늙고 있다!

고령사회와 교회, 그 해법을 모색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선 지 5년이나 지났다. 고령사회에 진입한지 오래됐다는 의미다. 노인 인구 증가 현상은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교회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다. 한국 교회의 60세 이상 성도 비율이 1995년 37만 명이었는데, 2013년 121만 명으로 수직 증가했다. 60세 이상 성도 비율이 3배 느는데 20년도 걸리지 않았다. 지난 2014년에는 60세 이상 성도 비율이 24.4%를 기록하면서 '초고령 교회'에 진입했다. 초고령 교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 지면에서는 초고령 교회가 된 한국 교회의 상황을 냉철하게 진단하고, 시니어 사역의 필요성을 점검하며, 실버세대를 위한 교회로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늙고 있는 나라다. 고령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나라이기도 하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약 17.5%다.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50년까지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무려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한다.

유엔(United Nations, UN)에서는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이미 한국은 지난 2018년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며 고령사회로 들어섰다. 2022년 통계청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오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한다.

사회가 고령화되면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긴다. 대표적인 문제가 '노인 빈곤', '노동인구 부족', '정보격차' 등이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는 꽤 오래되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6.5%다. 노인 2명 중 1명이 빈곤한 상태였다. 노인 빈곤은 저출산 문제와도 연관이 깊다. 노인을 부양할 젊은 세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 인구 피라미드(인구의 성별, 연령별 구성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보면 그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더욱 실감할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아이가 많고 노인이 적은 피라미드형 모양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 전후로 호리병 모양으로 변했고, 2050년에는 역피라미드 모양으로 변한다. 생산인구는 적고,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 것이다.

고령화는 노동인구 부족 문제로 연결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있다. 나라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경제활동의 주축이 되는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노동인구가 줄어들면 소비가 위축되고, 축소된다. 인구 문제는 결국 경제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다.

정보격차도 고령화사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노인이 정보통신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 않다. 당장 키오스크(kiosk,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어려운 조작 방법과 보이지 않는 스크린 속 조그마한 글자들, 뒤따라오는 따가운 눈초리가 노인들을 주눅 들게 만든다. 노인들에게는 햄버거 하나 사 먹는 것도 어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이 빠르게 늙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보다 더 빨리 늙는 교회

한국 교회는 사회보다 더 빨리 늙고 있다. 한국 교회는 이미 2014년 60세 이상 성도 비율이 24.4%를 기록하며 '초고령 교회'에 진입했다. 2021년에는 60세 이상 성도 비율이 37.7%에 달했다.

교회의 고령화 현상은 단순히 고령의 성도가 많아지는 게 아니다. 교회의 고령화는 많은 부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고령화 사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과 연관성이 깊다. 그 연장선상에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다.

교회의 고령화 현상은 성도 연령 구성의 변화를 낳는다. 교회가 고령화될수록 차세대가 줄어들고, 실버세대가 증가한다. 사회가 고령화될수록 노동인구가 감소하는 것처럼 교회도 활발하게 사역하는 성도들이 줄어든다. 성도들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활동적인 사역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성도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교회의 재정 문제로도 이어진다. 사회의 고령화가 노인 빈곤, 생산인구감소와 같은 경제 문제를 가져오는 것처럼, 교회의 고령화 현상은 교회 재정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교회는 대체로 성도들의 헌금으로 운영된다. 시설비용, 사례비, 행사비 등 운영비는 물론이고, 사역도 헌금으로 한다. 선교헌금으로 선교하고, 비전헌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 그런데 교회가 고령화되면 자연적으로 헌금이 줄어들고, 교회 운영 및 사역 실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세대 간 단절과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교회는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다. 그래서 세대 격차를 실감할 수밖에 없다. 실례로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예배와 모임 등이 활성화되었을 때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능숙한 젊은 세대에 비해 고령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세대가 달라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제한적인 경우도 있다. 실제 고령 성도들이 교회에서 심리적 위축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교회의 65세 이상 성도 38%가 "교회에서 젊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눈치가 보인다"고 응답했다. 또 고령 교인 10명 중 3명 안팎이 "교회에서 나에 대해 관심이 멀어지는 것 같다(22%)", "교회에서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15%)"고 응답했다.

해법, 실버세대를 위한 교회 구축

교회에 차세대는 사라지고 노인만 남는다면, 교회를 운영할 재정이 부족해진다면, 세대 갈등 등으로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사회가 늙어가면서 겪는 문제들을 교회도 똑같이 겪을 수 있다. 어쩌면 교회는 더 빠르고, 더 크게 느끼고 있다. 고령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교회가 사라질지도 모른다.

초고령 교회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그 해법으로 '실버세대를 위한 교회 구축'을 제시한다. 실버세대 성도들이 지금의 교회를 세웠다. 벽돌 한 장 한 장 나르며 교회를 세웠고, 직접 뛰어다니며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했다. 무릎이 닳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믿음의 선배들이다. 그들에게 갚아야 할 은혜가 많고, 그들에게 배워야 할 지혜가 깊다.

직분에서 은퇴한 71세 이상 고령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교회 사역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71세 이상 고령 성도 절반(50%)이 "건강이 허락되는 한 교회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답했다.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는 의견도 40%나 됐다.

실버세대를 위한 교회 구축을 위해서는 실버세대를 배려하고 섬기고, 실버세대를 활용하는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온누리교회에는 실버세대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시니어 아카데미, 은빛날개, 갈렙선교학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은퇴 이후에도 건강하고 성숙한 영성을 기르며, 다양한 곳에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양육 과정들이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 다양하고 전문화된 프로그램이 많아져야 한다.

맛있는 말씀 해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삼상 17:47)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가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었다. 이 드라마가 성공한 요인은 현대인들의 내면에 드리운 분노에 카타르시스를 만끽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드라마가 전개될 때마다 사회적 약자가 가해자에게 앙갚음 해주는 짜릿한 복수극은 매주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했다. 이는 인간 내면에 있는 권선징악의 본성을 예리하게 자극했기 때문일 것이다.

드라마 '더 글로리'는 고등학교 시절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문동은(송혜교 분)이 성장해서 가해자들에게 당했던 것을 차례대로 복수하고 앙갚음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여러 가해자 중 한 사람인 이사라(김히어라 분)의 경우 공교롭게도 대형교회 목사의 딸로 등장한다. 이사라에게 복수하기 위해 교회를 찾아간 송혜교는 가해자의 아빠가 예배 중에 설교하는 것을 듣게 된다.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자 송혜교는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자신만의 전쟁(복수)으로 신 앞에 결사항전(복수) 하겠다"고 말한다.

영화 '친절한 금자씨' 같은 복수 소재가 안방까지 침투해 기대 이상의 돌풍을 일으킨 또 다른 이유는 한국 사회 저변에 깔린 피해의식 때문 아닐까 생각해본다. 한국은 성장 주도의 사회였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산업화시대와 고도의 경제 성장시대를 거쳤다. 경쟁 사회에서 힘은 모든 것을 말해준다. 어떻게 해서라도 남을 짓밟고 올라서면 된다는 힘의 논리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인의 채울 수 없는 욕망과 끝없는 성공 욕구는 힘없는 약자를 찾아 괴롭혀서라도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뼈아픈 생채기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끝자락에서 더 글로리의 학교폭력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에 시청자들은 약자 편에서 동정하고, 정당한 복수를 무조건 합리화하는데 쉽게 동화되어버린다.

그러나 더 글로리에는 우리가 모르는 무서운 치명적 문제가 있다. 첫째, 드라마의 전제가 잘못 설정되었다는 것, 둘째, 그 구도가 악의적이거나 반기독교적인 감정이 지나치게 개입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더 글로리와 같은 복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 간략하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사적으로 복수를 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다(삼하 13:23~39). 구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사적으로 내리는 복수는 언제나 받은 것보다 도가 지나칠 수 있기에 매우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출 2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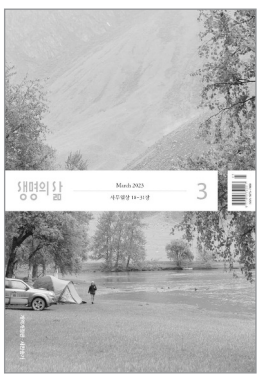
그런데 예수님은 복수는커녕 원수까지 품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신다(눅 6:27~38). 도대체 이것이 가능이나 한 일일까? 일평생 학교폭력과 같이 씻을 수 없는 내면의 상처와 학대를 받은 사람에게 가해자를 용서하라는 게 말이나 되는 것일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 인간의 복수가 가져올 끔찍한 파괴와 생명경시를 피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몸소 로마의 권력과 폭력에 복수하는 대신 용서의 길을 선택하셨다. 그렇다고 메시아가 진정 로마제국보다 힘이 약해서 로마 군인에게 무력하게 처형당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 주신 사랑은 인간의 문제가 힘의 논리가 아닌 원죄의 문제임을 알았기에 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의를 참고 죽으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피해자 또한 가해자로 돌변할 수 있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잘 아셨기 때문이다. 더 글로리와 같은 드라마가 사회 풍조라 할지라도 교회와 크리스천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되 결코 내 손을 통해 사적으로 복수와 원수를 갚으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신 피해자를 세심하게 돌보는 상처입은 치유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하나님 사랑을 보여 준 위대한 우정

3월 6일~12일
사무엘상 19:18~21:15



묵상포인트 1: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사람은 안전하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추격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다윗을 넘겨주지 않으신다. 국정을 돌보지 않고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된 사울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지, 하나님이 사울의 악한 시도를 어떻게 무산시키시는지 묵상하자.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 사무엘에게로 도망간다. 다윗의 위치를 알게 된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사무엘 근처까지 간 전령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사울의 악한 시도를 무산시키신다.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겠다며 라마 나욧으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 그는 벗은 몸으로 예언한다. 이는 이성을 잃고 행동하는 사울의 영적 상태를 잘 보여 준다.

묵상포인트 2: 친구의 생명을 지켜 주는 것은 위대한 우정이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부자지간의 정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 가문의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음을 알고도 그는 다윗을 돕는다. 그가 다윗에게 베푼 은혜는 보통 사람을 넘는 지고의 사랑과 헌신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요나단의 사랑을 묵상하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다윗은 자신을 향한 사울의 의중을 정확히 알고 처신하고자 한다. 그래서 자신은 초하루 식사에 불참하고, 요나단에게 사울의 의중을 살펴 달라고 부탁한다. 초하루 잔치에서 다윗이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참석하지 않자 사울은 다윗의 행방을 묻는다. 요나단이 다윗과 약속한 대로 말하자 사울이 불같이 화를 낸다. 사울은 이성을 잃은 채 다윗을 편드는 아들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 한다. 요나단은 아버지에게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괴로워한다.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장소에 가서 활을 쏜 후 데려간 아이에게 "화살이 네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라고 외친다. 이는 사울을 피해 도망가라는 사인이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 주는 요나단에게 절을 하고, 두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헤어진다.

묵상포인트 3: 다윗의 도피 생활 이면에는 왕이 되기까지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다윗은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이 더 안전하리라고 생각했지만, 그곳도 안전한 곳이 되지 못했다. 하나님 뜻은 유대 지역에 머물며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는 것이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따를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 묵상하자.

▶사울의 본심을 알고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된다. 다윗은 놉 땅의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간다. 다윗은 사울과의 갈등을 모르는 아히멜렉을 자신이 왕의 비밀 임무를 맡고 온 것처럼 속인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며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내주는데, 이 일로 놉의 제사장들이 큰 위기를 당하게 된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한다. 가드 왕 아기스의 용병이 되려고 간 것이다. 그러나 과거 골리앗을 죽인 일로 인해 사람들이 다윗을 경계하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미치광이 짓을 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기이한 방법으로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자.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우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았다.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하며 우정을 이어 갈 지체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실한 우정이 일평생 이어지기를 기도하자. ▶사울을 두려워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도망간 다윗은 낭패를 겪었다.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한 일은 없는가? 인간적인 생각과 계획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하나님 뜻은 항상 선하다는 진리를 기억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믿음이를 위해서!

두 번째 기도편지를 보냅니다. 믿음이에게 있는 '크라베병'은 GALC라는 효소 부족으로 몸에 지방이 쌓이면서 온몸의 감각과 기능이 퇴화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현대 의학으로는 치료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신 모든 상황을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때보다 오랜 시간 함께 지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요즘 믿음이가 밤에 잠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은 강직과 경련입니다. 믿음이에게 강직과 경련이 완전히 떠나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14번 염색체에서 GALC 효소가 분비되어 지방이 분해 되고, 이미 쌓인 지방 찌꺼기들이 제거되어 깨끗해지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믿음이의 인지기능이 회복되어 눈 맞춤하고, 웃으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외칠 수 있도록, 창조의 기적이 믿음이에게 일어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더불어 우리 가족에게 다윗의 믿음이 부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매일 믿음의 물맷돌 훈련을 해서 크라베라는 거대한 골리앗 앞에서 모든 능력과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돌을 던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김빛나 성도(강동온누리교회)

2023 순장영성수련회에서 순장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영혼을 돌보는 순장 되겠습니다!"

2023 순장영성수련회… 신임리더십 481명 임명

2023 순장영성수련회 '영혼을 돌보는 순장'이 지난 3월 1일(수)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막 올랐다. 온누리교회 리더십(순장, 다락방장, 총무, 장로) 1,7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순장영성수련회에서는 새 리더십도 세워졌다. 신임순장 336명, 신임 다락방장 145명이 임명장을 받았다. 온누리 순장 어워드에서는 최장기 순장상 남정희 순장(서빙고공동체), 최다산 순장상 박호준 순장(일산공동체), 기러기 순장상 신하식 순장(강남E공동체), 고영선 순장(광명공동체), 감동 순장상 주익수 순장(관악금천공동체), 김영관 순장(양재B공동체), 류재석 순장(인천온누리교회), 최고령 순장 김영배 순장(성동광진공동체), 김희수 순장(이촌공동체)이 수상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공동체로의 보내심'을 주제로 메시지를 선포했다. 이 목사는 "순원들과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임재가 순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축복했다.

홍성호 장로(당회서기)는 "충성되게 섬기는 모든 리더십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위로했고, 임찬중 순장(성북공동체)은 "순원이 살아나고 회복되도록 돕는 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3월 28일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개강

매주 화 오후 8시 온라인, 참가신청 홈페이지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Onnuri Online Community; 이하 온라인커뮤니티)가 3월 28일(화) 개강한다. 온라인커뮤니티는 여러 사정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20세 이상 성도들을 위한 맞춤 온라인 공동체다. 개인 사정으로 공동체에 소속할 수 없었던 성도, 공동체 활동에 무관심했거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성도, 전도대상자, 구도자가 그 대상이다. 참가신청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이번 학기 온라인커뮤니티는 3월 28일부터 6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한건수 대표(국민대 겸임교수),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 온라인커뮤니티 담당)의 〈생명의 삶〉 묵상 말씀, 소그룹 모임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의: 02-3215-3214

3월 6일 '전도 페스티벌'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 오후 6시 30분

'전도 페스티벌' 행사가 3월 6일(월) 오후 6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전도학교, 전도콜센터, 전도폭발 사역자, 각 공동체 전도사역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다. 전도 페스티벌에서는 전도 비전 선포, 전도 메시지, 전도 특강 및 영성훈련, 교제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진다.

문의: 02-3215-3214

2023 차세대 신년모임

차세대 교역자, 교육위원 등 135명 참석

'2023 차세대 신년모임'이 지난 2월 26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선교관 지하 2층)에서 있었다. 차세대사역본부 교역자와 교육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신년 다짐과 포부, 친목을 다지는 시간이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이날 차세대 신년모임에는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차세대 교역자와 교육위원 135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교만을 버리고, 끊임없이 배우는 자세로 차세대사역을 할 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호동 전도사(양재 예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다"고 말했고, 임정민 전도사(평택 꿈땅)는 "차세대들에게 맛있는 영적 만나를 주기 위해 더욱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기독 OTT '퐁당' 키즈 콘텐츠 풍성

〈고고 바이블〉 등 키즈 콘텐츠 총 48개

기독 OTT 플랫폼 '퐁당'이 건강한 자녀 양육에 관심 많은 부모를 위한 다양한 키즈 콘텐츠 보급하고 있다.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은 성경이 어렵게만 느껴지는 어린이들도 쉽고 재미있게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콘텐츠다. 〈히즈쇼 살아나는 성경동화〉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총 10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는 콘텐츠다. 애니메이션 큐티 〈갓툰〉은 재치 있는 대사와 스토리로 어른아이 모두 즐겨보는 콘텐츠다. 이 외에도 신앙교육과 영어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갓 락스〉와 〈바이블맨〉, 〈우리 몸으로, 퐁당!〉 등 총 48개의 키즈 콘텐츠가 있다.

CMN 수기요법 기능스쿨 초급-고급 모집

서빙고 14일, 양재 16일 개강, 아이스쿨 신청

CMN 수기요법 기능스쿨 초급-고급반이 개강한다. 수기요법은 신체 주요 부위 혈자리와 근육의 지압으로 어깨결림, 허리, 무릎 통증, 오십견 등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는 방법이다.

서빙고온누리교회 3월 14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꿈터홀, 양재온누리교회 3월 16일부터 5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충성홀에서 진행된다. '신체 주요 부위 혈자리 지압', '부위별 증상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 '부위별 운동요법을 통한 치료의 완성과 아웃리치' 등을 주제로 이황재 강사가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9267-7123

서빙고 특별한초대 스태프 모집

서빙고온누리교회 열린새신자예배 특별한초대공동체에서 스태프를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환영 및 안내, 데코레이션, 영상촬영 및 편집, SNS 관리, 예배 및 행사 기획, 찬양 콰이어 등이다. 열린새신자예배를 섬기고 싶은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열린새신자예배는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다.

문의: 02-3215-3177

3월 화요성령집회 'A winning life'

대학청년부 3월 화요성령집회 'A winning life'가 시작된다. 3월 7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7일 이서진 목사 '기다림과 승리'(벧후 3:8~14), 14일 최성민 목사 '믿음과 승리'(요일 5:4~12), 21일 정한효 목사 '진리와 승리'(마 4:1~11), 28일 최성민 목사 '사랑과 승리'(요 15:9~17)을 주제로 설교한다.

와이무슬림 참가자 모집

와이무슬림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도곡교육관 온유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4월 1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와이무슬림은 이슬람 역사와 문화 등을 배우며 이슬람을 이해하고, 이슬람권에 대한 선교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이슬람 역사, 문화와 신앙체계의 발전 과정', '성경적 관점에서 본 이슬람', '이슬람의 예수 이해', '한국의 이슬람'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5557-8924

양재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3월 15일부터 매주 수 양재 드림홀

양재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3월 15일부터 6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50분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과 회비 납부는 개강 당일 현장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

양재 시니어아카데미는 교재 〈실버세대를 위한 영성 가이드〉를 바탕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펴보면서 삶의 목표를 세우고, 비전, 두려움, 행복, 신앙, 절망, 자신감, 죽음 등을 주제로 조별 나눔을 한다. 특순 찬양, 레크레이션, 특강 등도 진행된다. 문의: 010-8989-3473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 모집

3월 16일~5월 11일 서빙고 비전홀

2023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이 3월 16일 개강한다. 5월 11일까지 9주 동안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지하 1층)에서 진행된다.

'호스피스는 생명사랑이다', '호스피스 환자의 영적 돌봄', '죽음의 이해와 철학', '애도상담', '봉사자의 자기돌봄과 소진 예방', '통합 의학 암치료와 전인건강' 등을 주제로 박성천 목사(온누리호스피스 담당), 김도봉 목사(한국호스피스협회 부회장), 윤득형 목사(숭실사이버대 겸임교수), 이혜원 실장(한국호스피스협회), 김태식 박사(암 병원 고문),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문의: 010-3412-7966

▌신임 순장의 다짐

좋은 순장, 모범적인 순장

/ 원영조 순장(노원공동체)

우리 순장님이자 공동체 장로님이 나에게 순장을 해보지 않겠냐고 처음 제안하셨을 때는 고사했었다. 그 이유는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있었던 안 좋은 기억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해도 신앙이 좋아지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사실 나는 모태신앙(가톨릭)이다. 어머니 배속에서 세례명을 받고 태어났다. 아내와 결혼하고 기독교로 바꿨다. 내 직업은 피아니스트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임직자들을 통해 굳이 몰라도 되는 부분까지 알게 되면서 실망을 많이 했다. 그 이후로 교회는 다니되 절대 사역은 하지 말아야지 다짐했었다.

외국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다니던 교회에서 내 직업을 알고 사역을 시켜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실망을 많이 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교회를 옮겨야 했다. 마침 같은 학교에 온누리교회 순장님이 계셨다. 그분 추천으로 온누리교회에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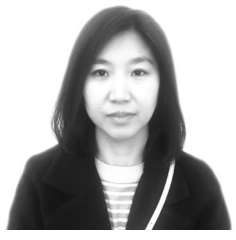
온누리교회를 다니면서 이전 교회에서의 실망과 상처 등이 조금씩 치유됐다. 장로님과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고, 순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은혜와 배움을 얻었다. 그 장로님이 나에게 순장 제의를 하셨다. 나는 단칼에 거절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봤더니 순장이라는 직분과 이전 교회에서의 사역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믿고 의지하는 순장님이 권유해주시니까 큰맘 먹고 한번 해봐야겠다고 다짐했다.

순장으로서 햇병아리지만, 장로님이 내게 해주셨던 것의 반 만큼만이라도 따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로님은 내가 생각하는 가장 모범적인 리더이다. 기독교 장로의 전형(典型)을 보여주는 분이다. 그 장로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순장으로서 첫발을 떼려고 하는 나에게 예전 교회에서의 안 좋은 경험과 기억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순장으로서의 섬김은 나에게 큰 시험이고, 도전이다. 잘하고 싶다. 처음이라 분명 서툴 것이다. 그러나 모범적인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하면 순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성도님의 기억에 남는 좋은 순장이 되고 싶다. 온누리교회의 모범적인 순장이 되고 싶다.

▌신임 순장의 다짐



모세와 같은 온유한 순장

/ 김은혜 순장(과천의왕공동체)

사랑하는 아버지, 초짜 순장으로 새 학기 맞이하기 직전입니다. 저희 순장님이 지난해 12월 저에게 "내년에는 순장을 해보는 게 어때요?"라고 했던 것 기억하시죠? 순장님이 안식년을 가지는 동안 그 자리를 대신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능력이 없어서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 혼자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께 의논드리기를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JDS(예수제자학교) 훈련이 끝나고 나서 내게 이렇게 말했지? 세상의 학문과 나의 제자들에게 배웠던 모든 것을 고려하고 고민하고 결정한 다음 나에게 기도했는데, 그것을 후회하고 돌이키고 싶다고 말이야. 기도하면서 먼저 나에게 묻고,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마음과 내가 성경에 쓴 말에 일단 순종하고, 그 뒤에 생각하고 느끼겠다고 했었지?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래서 제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순 자매님들은 모두 믿음 위에 든든히 서 있고, 경륜도 높기에 저는 그저 심부름꾼이라는 마음으로 섬기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공동체 수련회에서 목사님이 "영혼을 돌보는 리더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거의 막낸데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음을 뉘우쳤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고, 그동안 보지 못하던 것을 보여주시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모세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매정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아쉬웠겠지만 섭섭하지 않았음을 진정 알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대면한 모세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을 테니까요.

아버지, 저도 모세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알고 싶습니다. 매일 만나고 싶습니다.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되어서 가족들과 순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딸이 되고 싶습니다. 제사장의 자리가 두렵기만 한 자리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말씀이 제 눈의 색안경을 벗겨주었습니다. 순원들을 섬기는 게 일이나 짐이 아니라 기쁜 선물이라고 하셨으니까 저도 그리 여기겠습니다. 혹여 제가 딴길로 가면 꼭 붙잡아주십시오. 이름을 불러 멈춰주십시오. 제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또 편지 드리겠습니다.

▌신임 순장의 다짐

예배하며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순장

/ 장동희 순장(평택온누리교회)

어느 날 성가대를 함께 섬기는 김삼선 집사님께서 순장학교 수업을 들어보라고 권유하셨다. 이 권유가 처음에는 '또 교육을 해야 하나?'라는 부담감으로 나를 찾아왔다. 찬양팀 섬김,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 훈련과 동반자 훈련 등을 쉬지 않고 달려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매도 빠르게 맞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순장학교를 신청했다. 지금 돌아보니 내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아뿔사! 순장학교 첫날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들 구력이 넘치는 분들이 모여 계셨다. 더욱 내 마음을 철렁하게 한 것은 순장학교는 단순한 양육과정이 아니라 이수하면 순장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그 순간 혼란스러웠다.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했다는 표현이 맞을 듯싶다. 하지만 순장학교를 신청한다고 했더니 옆에서 도와주겠다며 따라온 아내를 보고 포기하겠다는 말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용기 내어 순장학교 과정을 시작했다. 동행한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신다고 또다시 고백할 수 있었다.

순장학교를 다니면서 내 마음에 크게 울리는 부분은 섬김과 순예배에 대한 인식 전환이었다. 9주 동안 매주 조별모임과 서로 돌아가며 음식을 준비해서 나눴다.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서 음식을 손수 만들어 섬기는 모습이 감사했다. '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순장학교를 다니기 전에는 순예배를 단순한 교제 모임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순장학교를 이수하면서 순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예배여야 한다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다. 내 사고와 인식을 바꾸는 순간이었다. 순장학교를 수료하면서 섬김과 순에 대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꺼이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나와 우리 순원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신임 다락방장의 다짐

겸손하게 섬기는 다락방장

/ 주수일 다락방장(관악금천공동체)

2014년 2월부터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전에는 인도에서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미국인 선교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출석했다. 찬양이 끊이지 않는 정말 좋은 교회였다. 아쉬운 점을 꼽자면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가 따로 없어서 두 자녀가 성인예배를 함께 드렸다는 점이다. 국내에 들어오면서 아이들이 신앙을 잘 배울 수 있는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는 아내의 의견을 따라 두 달 동안 교회를 찾아다녔다.

그중에서 가장 감동을 주는 교회가 온누리교회였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보내든지 배우든지'라는 표어였다. 공동체도 정말 좋았다. 아이들을 위해 선택한 교회였는데, 가장 큰 은혜를 누린 것은 아마 나였을 것이다. 리더십들의 섬김과 공동체 성도님들의 순종이 큰 은혜였다.

다락장방장으로 섬길 큰 은혜가 주어졌다. 박구병 장로님께 다락방장으로 섬겨달라는 말씀을 듣고 정말 부족한 게 많아서 부담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기도제목이 '교회와 사회에서 믿고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다락방장으로 섬기게 된 것이 이 기도제목의 응답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내가 믿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고, 그런 동역자를 만나기 위해서 다락방장으로 섬기겠다고 "아멘"으로 화답했다.

온누리교회에 막 등록했을 때 아이들을 잘 보살펴 주신 황성주 장로님처럼 성도님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다락방장이 되고 싶다. 황 장로님은 남들은 잘 모르게 성도님들을 참 많이 도와주신다. 황 장로님을 보면서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인지를 알 수 있었고, 닮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순장은 온누리교회의 큰 기둥이다. 순장님들과 순원님들을 보필하는 다락방장이 되고 싶다. 더 많은 성도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고 한 분 한 분을 돕고 섬기고 싶다. 공동체 성도님들께도 부탁이 있다. 나는 정말 부족하고 또 부족한 사람이다. 같이 합력해서 공동체와 성도들을 섬기고, 진리 다락방이 교회 안과 밖에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바로 보여 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장로칼럼

호스피스, 천국의 안내자

최민철 장로
(관악금천공동체,
온누리호스피스)

호스피스는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일이다. 환자가 남은 생애 동안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도우며,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사랑으로 돌보는 활동을 말한다.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났다. 호스피스 사역으로 인해 삶의 소중함을 배웠고,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성경에 분명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 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피할 수 없는 자명한 진리가 죽음이다. 인류가 아무리 과학과 기술력을 가졌어도 우리 마음대로 자신에게만 죽음이 닥치지 않게 할 수 없다. 이 땅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원하지 않는 시간에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면 환자나 가족들이 당황한다. 그러면서 임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

오래전 일이다. 백혈병을 앓는 한 젊은이로부터 심방 요청을 받고 늦은 저녁에 그를 만나 천국 소망을 전한 적이 있다. 그 청년은 임종을 앞둔 상태였는데 묵묵히 복음을 듣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다음 날 새벽 그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게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다니….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인가? 그 청년은 천국에 가면서 매우 기뻐할 것이고, 나도 그 짧은 순간이 전도의 마지막 기회인 줄 모르고 복음을 전했다. 그 기회를 잘 살린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나뿐 아니라 많은 사역자가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다. 한 자매는 폐암이 뇌로 전이된 상태에서도 호스피스 사역을 잘 감당하고 천국에 갔다. 한 권사님은 췌장암 말기 환자임에도 더 심한 상태의 환자를 돌보다 천국으로 가셨다. 이 훌륭한 사역자들 덕분에 보람을 느낀다.

호스피는 사역에서는 환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행복한 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한다. 환자가 편안하게 죽는 것을 도와줄 뿐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심방을 와 달라는 요청에 응하기도 한다. 때로 심방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무거운 자책감에 빠져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었다. 그러나 호스피스 사역의 도움을 받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천사 같은 모습으로 생애를 마친다. 그 덕분에 호스피스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이 사역이 천국 안내자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누군가를 돌보고 영육 간에 도움을 주려면 영혼육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예수님도 늘 준비하시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준비될 때 효과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우리 모두 풀어야 할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면 호스피스 사역에 동참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의 천국 안내자가 되어 보지 않겠는가?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에서 천국 안내자가 되는 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온누리 호스피스 스쿨
일정: 3월 16일~5월 11일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비전홀
문의: 010-3412-7966

권사칼럼

아픈 만큼 성숙하는 가정

한은경 권사
(두란노어머니학교
이사장)

꽃보다 아름다운 것이 '가정'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식물과 동물, 그리고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지으신 다음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공동체인 가정을 지으시고는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으시고, 두 사람이 에덴동산에서 함께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기뻐하셨다. 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두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습을 그리시며 매우 행복해하셨다. 가정은 하나님의 꿈이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다.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한다. 물론 결혼의 의미는 사회적, 법적, 심리적, 성경적 등 다양하다. 그러나 사실은 행복해지기 위해 결혼한다. 연애하는 사람들은 결혼하면 더 행복해질 거라 확신해서 결혼한다.

그러나 진실은 결혼하면 불편해지고, 갈등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연애할 때는 이타적이던 사랑이 결혼 이후 자기중심적으로 변하고, 자라면서 몸에 익힌 서로 다른 배경과 문화가 충돌하면서 갈등한다.

이 땅에는 세 가지 종류의 가정이 있다. 첫째, '갈등을 억누르고 사는 가정', 둘째, '갈등을 회피하고 사는 가정', 셋째, '갈등을 극복하고 사는 가정'이다. 공통점은 갈등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갈등을 혼수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결혼생활의 행복과 불행은 갈등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렸다. 결혼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극복하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이다. 그러면 행복에 대한 정의도 달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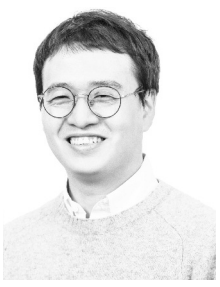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우리를 가장 성숙하게 하고, 성장시키는 곳은 가정이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용서가 필요한 곳도 가정이고, 시험이 가장 많은 곳도 가정이다. 눈물과 한숨이 많은 곳, 분노와 좌절이 많은 곳, 마치 광야와 같은 곳이 가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결혼 신화에 붙잡혀 있다. '두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더라'는 신화다.

우리는 동화책 〈신데렐라〉를 읽으면서 매우 행복해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혼한 두 사람이 틀림없이 행복했을 거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나도 신데렐라처럼 되고 싶다는 꿈을 가졌다. 그것이 바로 '신데렐라 신드롬'이다. 그러나 안타깝게 신데렐라가 행복할 확률이 매우 낮다. 두 사람이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뛰어난 외모를 자랑해도 두 사람은 결국 죄인이기 때문이다. 결혼은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것이다. 결혼 이후 죄성으로 인한 자기중심성과 문화와 배경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이 기대한 것과 달리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어서 이혼했거나 눈물 속에서 정서적 이혼 상태로 살았을지도 모른다.

갈등은 극복할 수 있다. 다만 갈등을 극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갈등도 삶의 일부다. 파도타기를 즐기는 사람은 오히려 높은 파도가 오기를 기다린다. 훈련을 받았기에 그들은 높은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훈련받은 만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다. 갈등의 아픔을 극복하는 가정은 더욱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 행복은 노력하는 자의 것이다.

신앙에세이

인풋(Input)과 아웃풋(out put)



조은광 전도사
(여호수아청년부)

대개 과정(process) 사이에 인풋(input, 입력)과 아웃풋(output, 출력)이 있다. 예배당에서 사용하는 수많은 음향 기기에도 인풋 단자와 아웃풋 단자가 있다. 사용자의 기대대로 왜곡되지 않은 결괏값을 내주는 기기일수록 잘 설계된 것으로 본다. 우리 삶에서는 인풋과 아웃풋의 원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

로마서 12장 9~21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는 세 가지 원리를 알려준다. 구원 받기 위한 행동강령이 아니라 복음에 빚진 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태도에 대한 권면이다.

첫 번째는 사랑의 원리다. 거짓 없이 사랑하고(9절), 서로 먼저 존경하며(10절),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환난 가운데 참으며 기도하라고(12절) 권면한다.

두 번째는 나눔의 원리다. 필요한 자를 찾아야 하며(13절),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고(15절) 권면한다.

세 번째는 반대의 원리다. 낮은 곳으로 가기를 힘써야 하고(16절), 세상과 가장 반대되는 방식을 택하며(17절),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라고(21절) 권면한다.

대부분 세상 조직은 피라미드 형태다. 더 적합한 자가 위로 올라간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원리대로 살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구조다. 역피라미드 형태이다. 하나님을 더 인격적으로 만날수록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간다. 그것의 극치가 바로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세상 기준으로는 가장 이해할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인풋과 아웃풋을 보여준 사건이 예수님의 삶이다.

인풋과 아웃풋을 가장 고도화된 방식으로 분석하고 처리하는 기술 중 하나가 인공지능(AI)이다. AI는 계속 변화하는 현대 문화와 사회에서 '빅데이터'라는 인풋을 분석해서 기술적으로 가장 최적화된 아웃풋을 도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세상이 변하기에 끊임없이 인풋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아웃풋 또한 달라진다.

AI에게 고의적으로 싸움을 걸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술적으로 발달이 덜 된 AI는 대화를 종료시키려고 하거나 심한 경우 스스로 작동을 멈출 수도 있다. 그런데 고도화된 AI일수록 싸움을 걸면 마냥 지지 않는다. 상대방이 더 약 오르고 화가 나도록 웬만한 사람보다 능숙하게 응수할 것이다. 이는 세상 사람들의 행동 양상을 분석하고 예측하기 때문에 나오는 당연한 아웃풋이다.

나도 집에서 한 통신사의 자그마한 인공지능 기기를 사용한다. 날씨를 물어보면 최고 기온과 최저 기온, 미세먼지 등에 대해 알려주고, 입고 나가기 적당한 옷을 추천해준다. 그런데 추운 날씨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일까? 추위에 떨고 있는 나그네를 먼저 찾아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는 것일 것이다.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상대의 반응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질 필요가 없다. 우리의 인풋은 오로지 말씀이기 때문이다.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아웃풋이 달라지지 않고, 달라져서도 안 된다. 세상과 가장 반대되는 방식, 가장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열방예배
매주 목요일 오후 7:20 두란노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정성민 전도사(010-9496-705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박윤애 팀장(010-2771-0073)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홀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홀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현식 팀장(010-3597-7152)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월 첫주 군포 쉘터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0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1:0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따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 스리랑카어 주일 11:0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 다문화 예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 다문화 대청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협동조합 / 우즈베케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 러시아어 14:00 703호 / 미얀마어 14:00 706호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 꿈땅 11:00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 네팔어 11:00 2센터 2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세대예배실 / 열방청년예배 13:30 4층 OGA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일 19:30 301호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셔틀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홍숙의 권사(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쪽방촌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8964-5275
자녀를 군에 보낸 어머니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포에버성가대 대원 모집
대상: 찬양의 은혜를 사모하는 60세 이상의 온누리 모든 성도
일시: 매주 수 오전 10시~12시. 1, 4주 일 오후 2시~4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신관 101호
문의: 010-4338-4151
*타 캠퍼스도 지원 대환영

온누리선교재단 경력사원 모집
1. 서빙고 재정팀 경력사원 채용
업무: 결산 및 예산관리
조건: 대학교 2년제 이상, 경력 3년 이상
우대: 기업회계 경력자
2. 양재 전기팀 경력사원 채용
업무: 전기시설 및 소방관리
조건: 고졸 이상, 경력 2년 이상
자격증: 전기기능사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신앙간증문
제출: honeyple63@onnuri.org
문의: 이성호 총무팀장(02-3215-3101)

헬로맘 스쿨 개강
일시: 4월 14일~5월 26일 매주 금 오전 10시~12시
장소: Zoom 실시간
신청: 아이스쿨
회비: 3만 원
문의: 010-2716-2737

일대일 양육자반 수강생 모집(강미향 목사반)
일시: 4월 12일~7월 26일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30분~3시 30분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
신청: 아이스쿨
문의: 양육교육팀(010-4731-6514)

양 재
02.573.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땅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땅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4: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김종균 목사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빙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합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CMN 토브팀 의료진 모집
일시: 매월 두 번째 주일 오후
장소: 김포M센터(이주민, 난민 의료 지원)
분야: 치과의사, 치위생사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양재 권사 성가대원 모집
연습: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두란노홀
문의: 010-8949-1811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안드로이드/프론트/백엔드 개발자 각 1명
형태: 정규직 (수습 및 시용기간 3개월), 주5일 근무(주 35시간)
지역: 서울 서빙고동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부 천
032.322.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2:00 / 4부(대학청년) 4:00/ 5부 7: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0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후 2:00 예꿈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두란노홀

수 원
031.895.6500

토요주일예배
토요패밀리워십, 예꿈놀이학교, 샤이닝키즈, 어와나 10:00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찬양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오후 2시 비전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5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드림홀 / 유아부 9:00, 11:30 조이홀 / 유치부 9:00, 11:30 소망홀 / 유년부 9:00, 11:30 믿음홀 / 초등부 9:00, 11:30 대광빌딩 4층 / 소년부 9:00, 11:30 사랑홀 / 중등부 9:00, 11:30 비전홀 / 고등부 9:00 경찬홀
영어예배 차세대 11:30 경찬홀

대 전
042.825.3642

토요주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주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6부 19:00 / 세종교육관 본당 1부 9:00 / 2부 11: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 6:00 세종교육관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땅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꿈땅 11:30 402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 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65.9686

토요주일예배
10:30 3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대학청년) 14:00 / 4부(저녁) 19:00 / 행복한 하나예배(탈북민) 11:00 온유홀 / 다문화예배 15:30 꿈땅홀
외국어예배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1호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광릉내 M센터 304호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3층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2층 예꿈홀 / 유치부 9:00 2층 예꿈홀 / 유년부 9:00 2층 꿈땅홀 / 초등부 11:30 2층 꿈땅홀 / Awana 토요일 10:00 2층 꿈땅홀 / 중등부 오전 11:30 기쁨홀 / 고등부 9:00 기쁨홀

평 택
0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10
대학청년(주일)
14:3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 천
0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2층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 동
0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30 본당

양 지
0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J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벨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새벽예배 월~금 6:00시안홀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강부호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1길 70
횃불선교센터

• **부천**
정재욱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김승훈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기복 목사 (031) 565-9686~8(대표)
1194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신동식 목사 (031) 651-9680(대표)
17866 경기도 평택시 신흥1로 2길 61 2층

• **인천**
김승수 목사 (032) 437-9686(대표)
21987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교육로 75

• **강동**
이준호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박철웅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5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시카고**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뉴욕IN2**
심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5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서재범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박태영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470 Glenfield Rd. Glenfield Auckland
New zealand

• **홍콩**
송재호 목사 852-2506-0089
221-227 Austin Tower 22-26 Austin
Avenue, Tsim Sha Tsui, KLN, HK

■일본

• **동경**
후쿠자와 마키토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A-GAWA-KU SHIMAI-CHO61 EHWA DAIAMOND 2F

• **교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도균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ir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이길탁 목사 84-8-5412-2773
3S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강부호 정재욱 김승훈
김상수 이기복 신동식 김승수
이준호 박철웅

◈부목사(전임)
강미향 강은수 강지영 고범석
권오향 권용갑 길혜영 김도윤
김미정 김선재 김성욱 김성웅
김승겸 김승완 김영배 김요셉
김용민 김윤식 김재석 김재승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창호 김철희 김태용 김태완
김한국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치형 노희태 도육환 렴문홍
문영재 박근범 박성은A 박성은B
박성천 박천종 박형준 배행삼
백성우 백인규 변대섭 서경남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기섭
신경훈 신원석 스티브차 안사무엘
양성민 양재경 여성민 오 민
오은규 유진아 윤길중 윤마리아
윤현규 이강현 이기원 이기훈
이길탁 이비오 이서진 이세영
이승민 이우람 이윤재 이원진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찬우
이한규 임용성 장동원 장재원
전병천 전신익 전 진 전재표
정상훈 정성진 정승철 정한효
정현석 정형권 정회성 조동욱
조병홍 조바울 조준목 조현수
최대흥 최성규 최성민 최영민
최용준 최종현 최혁중 추대식
하성희 하정훈 한화수 한충희
홍기완 허원희 황종연

◈전도사(전임)
김은혜 김태광 민근홍 신대종
신현민 송동주 송예찬 오현교
유성하 이상욱 이진기 이호준
이형목 장지훈 정연상 조은광
주하늘 진선미 최재윤 카 와 무
라 요시키

◈목사(준전임)
구혜미 조호영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반

◈협동목사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부목사(파트)
가 나 강정모 김래위 김바울
김병석 김병철 김용산 김은하
김진숙 김종영 김태주 김혜경
네트라 뉴이엔은 랜디빠당줄렉스 마주마누룽
박씨마 백승현 비 컬 서영철
싱루아마눕 사가르 에릭마이클스톨즈
윌리엄 이민영 이은정 이진이
이진희 윤치연 제인량 차제이미
최정현 허효경

◈전도사(파트)
강귀용 강하람 강현구 권대식
권예람 김가희 김디모데 김동규
김미리 김민수 김반석A 김반석B
김사라 김영신 김예찬 김윤아
김의연 김종균 김주영 김정무
김지선A 김지선B 김진희 김태현
김하은 김한빛 김현경 남 혜
민혜영 박미애 박세연 박 성
박성배 박성원 박성훈 박새미
박예슬 박은혁 박의력 박유진
방선웅 방예린 배명지 백성주
서예찬 송유진 송선애 신기한
신새벽 신주용 심은섭 안류택
양현모 염경덕 오국헌 오성광
오성민 우승민 우진실 유석현
유요한 유현우 유호동 윤석무
윤종연 윤혜진 이나단 이도열
이명희 이민규 이상은 이소라
이송희 이시하라 노리코 이아르뚜르
이요한 이진수 이정빈 이준수
이준영 이지영 이태호 이 한
이현영 이형준 이휘영 임경미
임노완 임동현 임진숙 임정민
장건우 장광석 장영주 장요한
정기은 정상원 정성민 정연영
정주영 정희애 제영민 조민희
조슬기 조운식 조준기 지수정
주승환 주찬휘 진성희 진유석
최규종 최민정 최명훈 최은영
최혜정 한용태 허영은 홍근영
홍세나 홍슬기 황승남 황연신
황유일

◈사역장로
강기석 강영재 강의선 강인지
강찬석 강철호 구재영 권득한
권영석 권용성 권용한 권칠준
김경선 김경철 김관근 김관식
김광동 김광선 김기호 김남식
김남열 김명종 김명철 김상섭
김석인 김선래 김선택 김성묵
김성순 김상인 김수광 김수역
김수웅 김승열 김영수 김 완
김용성 김 웅 김웅배 김원규
김원균 김원중 김윤식 김의득
김이곤 김인화 김장렬 김재욱
김종건 김종성 김종승 김주흥
김진국 김창욱 김철수 김태경
김하중 김현철 김형식 나상권
노재한 노흥규 류지영 문성기
문창극 문창호 문충실 문현구
문형남 박 공 박병익 박봉래
박상송 박석봉 박성근 박성호
박영태 박용국 박종현 박찬빈
박태성 배 문 백남인 백승웅
백호현 백홍기 상병선 서성렬
서진봉 서찬교 성창섭 손한기
송만석 송영범 송영태 송유신
송일섭 송재길 송창도 신만인
신영각 신우권 신현종 심상달
심재욱 심창구 심춘보 안국영
안성영 안용태 안종인 안태환
양유식 양주현 양재수 엄태진
오성연 우광방 원우현 유병진
유병훈 유완영 유재천 유 형
윤기홍 윤성열 유의준 윤영섭
윤영오 윤현덕 윤형주 이강범
이건재 이경찬 이관수 이광형
이국주 이남수 이동희 이두송
이만식 이무웅 이병현 이상기
이상욱 이영걸 이영세 이영철
이용경 이용하 이우곤 이용대
이장로 이재경 이재규 이재준
이재호 이종순 이창남 이 철
이한열 이현조 이화영 이희주
장 광 장양희 장형준 전구영
전장하 정강무 정대서 정돈영
정문규 정병균 정보원 정순풍
정영열 정용화 정재탁 정재현
정학영 정희태 조규상 조성근
정수업 정진하 정파종 정희원
조항진 조희동 주수일 주웅일
차승철 차준구 차준한 천영무
최도성 최득린 최 명 최선수
최진성 최창규 최창수 최충길
최희영 편무옥 한갑수 한규종
한덕종 한백진 한양희 한종대
한형식 함공식 함선호 허형석
호종일 홍기명 홍덕표 홍범식
홍종철 홍정표 황영옥 황용오
황의서 황재규

◈시무장로
강경국 강동수 강부순 강상훈
강신익 강은철 강창재 강태욱
고다이라 고영주 곽병철 곽진성
곽희준 권순형 권오습 권오혁
금세종 김경돈 김경학 김광하
김광훈 김기섭 김기영 김도영
김동언 김두진 김만순 김명세
김명현 김명훈 김문갑 김민찬
김병순 김병옥 김상집 김상철
김선호 김성균 김성종 김성진
김성철 김성훈 김신원 김영관
김영손 김영욱 김영욱 김영한
김영환A 김영환B 김영환C 김용기
김용호 김우호 김 원 김이준
김인선 김장열 김재일 김정민
김정훈 김종완 김종호 김준규
김준영 김준용 김준홍 김지현
김지홍 김창석 김철민 김철주
김해기 김현주 김형겸 김형준
김형중 김화선 김화수 김효구
김희준 나광욱 나 영 나영욱
남명현 남상길 남상옥 남윤창
남정진 남주언 노기홍 노하수
라상원 류기범 명영찬 문쌍찬
문영기 민문기 박구병 박균명
박대호 박덕현 박동현 박두원
박명균 박명률 박성규 박순길
박승우 박영국 박영태 박영한
박우형 박일구 박일면 박일환
박재두 박중현 박지수 박치완
박해한 박현규 박형민 박흥균
박흥선 방찬종 배기영 배승호
백종신 백종욱 서달석 서명수
서병화 서성현 성광제 성주명
손기철 손정래 손태용 송동섭
송종환 송호철 신동기 신무환
신민호 신 섭 신철우 신학철
신헌승 심길섭 심효무 심희돈
안동혁 안상헌 양상식 양 웅
양준홍 양춘경 양충식 오 명
오범규 오상록 오성훈 오승탁
오이식 용내문 우승구 원종호
유봉국 유재홍 윤석우 윤석주
윤수민 윤영각 이경호 이경훈
이광순 이규천 이기증 이길수
이남식 이동욱 이백용 이병국
이봉의 이상도 이상율 이상준
이석일 이수완 이승배 이영근
이영복 이영찬 이우경 이은일
이인용 이재광 이재춘 이정구
이정근 이종길 이종우 이종철
이진택 이태열 이태환 이학일
이해달 이헌규 이홍선 임 훈
임광순 임병수 임상범 임정열
임현태 임호열 임희창 장경문
장경식 장광열 장규환 장문석
장선철 장정열 전영수 전한백
정광열 정명호 정상기 정영규
정영기 정영주 정영택 정영환
정운섭 정운오 정원만 정응화
정일영 정제범 정진호 정태경
제무성 조대식 조대희 조병현
조성수 조성현 조성환 조진호
조청구 주재량 진종구 최민철
최봉림 최상근 최석민 최성완
최용재 최주관 최한우 최현재
최형수 최호림 하주헌 한복규
한상규 한왕석 한창격 한충희
한필규 함일성 함정철 허 경
허광수 허복만 허영남 허영한
허필우 홍갑진 홍성호 홍의택
홍충선 홍해남 황병원 황상윤
황성룡 황윤일

◈명예장로
김종수 박동순 박찬구 이승규
이용만 이원로 이혁상 장옥룡
정광택 정병주 정상건 지성한
채수삼 최창걸 황용식

◈협동장로
강승모 김갑선 김정훈 김 준
남영태 류수광 리차드브릭스 박자인
박형규 양호승 우상근 이경희
정지석 주치수 최대화 최원호
최종훈 추교명 함지언 황재익

◈성가사
강내우 강순영 강중현 강혜영
김기덕 김건주 김병우 김병오
김선아 김세일 김은혜 김정겸
김정환 김지형 김혜경 김형준
김희정 남윤창 문보람 박은혜
박용규 박정규 손창우 송정희
신수정 신준환 오승현 오지훈
유선애 윤은희 윤지현 이미선
이민호 이명근 이수정 이성민
이세미 이수연 임진순 조익현
전병곤 전지영 정성미 채미현
최경열 최영은 최윤석 최지선
최진아 최재영 최혜경 최훈희
홍용식

◈반주자
강영우 강영은 강예은 고은찬
김강리 김기아 김병성 김보라
김보름 김선혜 김성태 김수현
김영찬 김은실 김은영 김은지
김인영 김정국 김지은 김지훈
김진수 김찬희 김현정 김형주
김효종 남궁진 남민우 남에셀
노성희 노소라 문예지 문희정
박선희 박아령 박요셉 박윤진
박지훈 박주영 배영근 송효빈
신선호 신은혜 심현보 안소라
안지연 안호진 안희준 오주영
우경진 염주희 왕희준 유은혜
유재경 유종광 유지혜 윤정희
윤주순 윤진영 이나래 이 준
이강석 이슬기 이애리 이예나
이예은 이지원 이지혜 이혜진
임현우 장재우 장현호 정경미
정다혜 정우찬 정주희 정지은
정진우 조민지 조영혜 천은진
최영균 최은미 최지훈 홍서영
황지영

해외 온누리교회

◈담당목사
권영환 김도균 김철진 박신웅
박태영 서재범 송재호 유현목
이길탁 이민욱 이영선 요시하라
마나부 전현규 정호석 니시야마
신이치 하카마타 미키 후쿠자와 마키토

◈미주OMA담임목사
김형철 마크최 심상현 이성권
이정엽 이중재 정장철

◈부목사
강일영 김기홍 김도일 김명성
김상훈 김인숙 김성연 김성진
김정운 김진우 김재형 김창식
김창호 남진숙 노경호 문성일
박대원 박종훈 박찬민 박현욱
박효빈 배성우 변범섭 손 담
손미경 신기원 심제헌 심형진
양진범 엄영기 우윤상 유명종
유정훈 이경호 이미령 이성은
이성원 이은택 이주영 이정주
이형근 장이삭 장제홍 전상현
전홍천 정동윤 정용환 조수정
조정호 최철홍 허 민 홍동욱
홍세반 홍 정 Joel Kim Joe
Lee Michael Lee

◈전도사
강요안나 고은아 강성효 강은주
김성현 김인혜 김영봉 김정옥
김창식 마커스 문성희 박종구
박지혜 서재욱 설산정 송민선
안대진 안지현 이민혜 이성훈
이수연 이은희 이용기 이지영
임지훈 윤성민 윤성준 장성진
장세윤 장유미 정선진 정은숙
정혁기 조 단 조민철 주지은
최정수 최진숙 코바야시 메구
쿠보텐치 하청훈 한현희 호산나
황나현 핸슨오 Amos Lee Chri
stine Daniel Kim David Ko
Enoch Cho Esther Choi Shin
David Kim Jeana Lee Jeff Yoo
Jessica Yi Joe Oh Sam Chung
Rachel Back Tommie Njobvu

◈사역장로
강희윤 권덕수 김경덕 김수광
김수호 김현중 남 영 백남인
서인택 신중수 우승호 윤영오
이문호 이정기 임병옥 정길안
한덕종 홍규석

◈시무장로
강성규 고성환 권우중 권오현
김재동 김재우 김준영 남영근
박호택 성헌제 손정래 신솔문
여훈필 유형민 이관표 이광철
이상헌 이수성 이은창 이준상
장민용 정헌주 조규배 조성민
조윤행 코다이라 노리히로 한상훈
허규회 홍관희 황용인 Henry
Park Hyun Chang

◈명예장로
김용석 염성국 윤부국

◈협동장로
강광일 김동민 김달수 김명훈
김연수 김요셉 김종수 윤창근
윤한돈 인정식 임헌식 오명진
정석환 최대화 최승호 최태영
추교명

◈성가사
고양숙 김성수 김수정 김용희
김좌겸 김진용 김홍규 남명호
박민규 박선영 박소영 박우람
송희경 엄지영 여훈필 염혜숙
유기열 이정민 이정우 이종현
정영진 정현경 조경화 조요셉
홍현철 황애란 황진주

결혼

3월 11일 토요일 오후 12:00 양재 사랑홀
주명성, 김은경(효성교회 장로, 권사)의 아들
주병현(효성교회)
서태구, 김혜주(온누리교회 집사, 권사)의 딸
서예현(온누리교회)

3월 11일 토요일 오후 14:00 양재 사랑홀
박경희(온누리교회 안수집사) 아들
제영민(온누리교회)
유흥식, 김현숙(굘현교회 권사, 권사)의 딸
유하영(온누리교회)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6959-0001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온누리복지재단 후원계좌
하나은행/573-910015-15105/(복)온누리복지재단
문의: 황찬범 간사(010-6209-3667)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 중 경로식당 배식 및 위생 관리 봉사활동 진행(시간: 11:20~13:30)
문의: 권현우 사회복지사(02-3474-6080)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봉사자 모집
내용: 경로식당 배식 봉사자 모집(단체, 개인 봉사자 가능)
일시: 평일 10:30~13:30 ※점심식사 제공, 시간조율 가능
문의: 김효정 사회복지사(070-4340-2509)

재 정

십일조헌금: 하나은행 573-810034-10105
주일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8205
감사헌금: 하나은행 573-910018-27605
해외선교헌금: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6104
절기헌금: 하나은행 573-910009-99004
*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 02-3215-3675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I(학습 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 자동문 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소천

2/22(수) 양재A 김재필 성도 빙부상 고 이정우
2/23(목) 경기A 김영미 성도 부친상 고 김경국
2/25(토) 강남D 박대수 집사 부친상 고 박호현
2/25(토) 경기A 조민아 성도 모친상 고 오선
2/25(토) 송파B 김지훈 성도 빙부상 고 심흥섭
2/26(주일) 서초B 송옥희 권사 부군상 고 황석순
2/26(주일) Bridge33 김상미 성도 부친상 고 김현수
2/27(월) 용산 조매리 집사 부친상, 박정환 집사 빙부상 고 조성남
2/28(화) 성북 김신일 집사 부친상 고 김세찬
2/28(화) OCC 김형주 성도 부친상, 박현지 성도 시부상 고 김성배
2/28(화) 강남C 권연주 집사 부친상 고 권은행
2/28(화) 여호수아 IKOMA YURI 성도 모친상 고 김현숙
3/2(목) 하모니 정유정 성도 모친상 고 임춘선
3/2(목) 서대문 이상신 집사 부친상 고 이귀철
3/2(목) 동작 성승권 집사 부친상, 조민정 집사 시부상 고 서주식

뮤지컬 '루쓰'의 주인공 가수 선예 & 이지훈이 들려주는
믿음의 고백과 찬양, CGNTV에서 만나보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행 배우 윤유선, 가수 이세준 출연 가수 선예, 이지훈 (뮤지컬 '루쓰' 주연)

3월 10일, 17일 금요일 오전 11시 방송 ('퐁당'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CGNTV
정기후원 [하나은행 573-910002-67804]
ARS 060-705-0000 문의 02-796-2243